MAY 13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132~1133 1983년 5월13일(금) & 14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May 13 & 14,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인타운에 4개 갱단

「KK」·「KB」·「HSF」·「KGK」등

가장 큰조직 KK단은 2백50명

(LA지사발)

시경찰동양인수사과는 9일 한인컴뮤니티의 갱단을 비롯한 아시안계 갱단들의 실태를 공개했다. 아시안계 갱단의 특징은 백인, 흑인및 멕시컨계 조직범죄단과는 달리 구역확보를 위한 세력다툼보다는 주로 절도, 금품갈취등 금전적 이익취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대상이 자신들의 컴뮤니티로 거의 국한되어있다는 점이라고 샘·마스다 동양인수사과 부반장이 밝혔다.

이중 한인타운에는 「Korean Killer」(KK)단을 비롯「Korean Brotherhood」, 「Hollywood Street Fighter」와 한인여성만을 괴롭히는 「Korean Girl Killer」(KGK)등 4~5개의 갱단들이 활동을 하고있다고 한 수사관은 전했다.

이 가운데 「KK」단은 규모가 가장 큰 50~2백50명정도이며 범죄대상 지역이 코리아타운부터 웨스트LA, 샌퍼난도밸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는것.

또한 경찰은 LA내 개업중인 맛사지 팔러의 대부분이 한국인 소유이며 일부 갱단원은 일부 맛사지팔러와 상가등을 돌며 일주일에 50달러~5백달러의 상납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아시안계갱단은 1970년대에 동양계 이민자들의 LA대거 유입이 이루어진후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국타운의 「와칭」, 일본타운의 「야쿠자」이며 최근들어 베트남, 필리핀, 타이, 인도차이나계의 갱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동양인수사과의 마스다부반장은 일본계범죄단이 1960년초에 수그러든후 69년에 중국계가 78년에 한국계가 79년에 베트남계 갱단이 자국컴뮤니티에서 각각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작년에 LA에서 발생한 2-3건의 살인사건이 이들 갱단과 관련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은 지난 75년 아시안계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키위해 일본, 중국, 한국, 필리핀, 타이틸 형사 11명으로 구성된 동양인수사과를 창설 운영하고 있다.

여객기납치극 한국에 횡재

한·중공관계 호전계기마련

CSM지 보도

(뉴욕 11일=연합) 크리스챤·사이언스·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지는 11일자 신문에서 중공여객기의 납치극은 한국의 중공관계에 횡재라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관점에서 볼때 한국은 중공과의 관계호전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대북한 입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평했다.

이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6명의 중공 망명자들은 국내선여객기를 납치함으로써 부지부식간에 한·중공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모니터지는 이어 상호 외교관계를 갖고있지 않은 한국과 중공은 피납승객과 승무원등을 송환하기 위해 중공협상대표단이 서울에 도착됨으로써 최초의 직접대면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제2의 소 수출국

캐나다, 한국에

급속한 산업화와 개인소득의 향상으로 육류소비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은 지난해 캐나다의 두번째 큰 소수출국으로 부상했다고 캐나다의 전국지 그로브·앤드·메일지는 11일 보도했다. 한국의 최대 소수입국은 미국이다.

이 신문은 지난해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1,320만달러에 상당하는 9,789마리의 젖소및 육우를, 80년이후 25,000마리를 수입했다고 밝히면서 금년에는 적어도 10,000마리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금기탁자 속출

캐나다『한인민족상』

올가을 제3회 「한인민족상」시상을 앞두고 기금 희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 제1회 수상자인 전택균씨(공로상), 5월9일 토론토 방문중 본사를 내방한 한인연합회 이유식 부회장(캘가리 거주), 11일에는 토론토 원모씨가 각각 $100를 기탁해왔다.

지난 80년 토론토한국일보사가 제정, 민족상위원회(위원장 구상회)가 운영을 맡고 있는 캐나다 「한인민족상」은 이질문화권인 캐나다사회에서 한국문화를 보전하고, 한인사회의 지위향상을 위해 마련한 「한인민족상」은 토론토한국일보사가 일체의 비용등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

이같은 취지에 찬동, 작년에는 민족상 위원들이 평균 $100씩 기탁했다.

민족상의 수상자격은 캐나다 거주 한인계 개인, 또는 단체와 비한국계 캐나다인이나 단체로서 도의적, 법적으로 큰 결함이 없어야 한다.

대상종목은 과거 2회는 예술상, 학술상, 공로상, 봉사상의 4개부문에 걸쳐 시상했으나, 지난 2월 운영위원회가 상의 질과 부상의 증액을 위해 학·예술상과 공로상의 2개부문으로 개정했다.

이제까지의 동 민족상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제1회(81년도)
예술상: 박재훈(음악가)
예술상: 김용순(무용가)
공로상: 전택균(전 토론토한인회장)
봉사상: 장근수(학자)

◉제2회(82년도)
학술상: 권오율(학자)
예술상: 김영숙(무용가)
공로상: 박재선(체육인)
봉사상: 김원겸(학자)

오늘 토론토에서 열리는 고국연예인쇼는 민족상 시상 기금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무자격정비소에 된서리

관계법규제정 움직임 활동

온타리오정부는 정직하지 못하거나 무자격정비사들로부터 자동차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을 고려중이다.

온타리오주내의 엉터리 자동차정비소에 대한 내사를 지휘하고 있는 데이비스·미첼씨는 피해자가 속출하는대로 이들을 보호할 법규가 없기 때문에 소비·상문제부(Ministry of Consumer and Commercial Affairs)에서는 법규제정을 위해 강력한 미국법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첼씨는 상행위국의 조사및 집행담당관이다.

온타리오에는 차량정비소에 관한 특별한 법규가 없다.

메트로·카운슬(Metro Council)의 법제정및 면허위원회는 미첼씨의 설명을 듣고 불량정비소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메트로 면허부(Metro Licensing Commission)와 협의했다.

미첼씨는 "차량정비소가 너무 광범위하고 차소유자들이 차에 대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차량정비업계는 엉망진창"이라고 말했다.

모국연예인초청쇼
오늘저녁7시30분
이주일·김연자 이은하·이용
토론토대학 콘보케이션·홀
(칼리지 X 세인트·죠지)

▲조프리발레의 공연작품중 하나인「라이트 레인(Light Rain)」. 매우 익사이팅하고 육감적인 작품이다.

"예산안, 영세민과 실업자 외면"

캐나다 로마 캐도릭주교단 성명

캐나다 로마가톨릭주교단의 레미·데·루 대주교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발표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당국자는 경제회복만 급급한 나머지 실업자와 영세민에게는 전혀 무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윤리적 반응(Ethical Reflection)이라는 자료를 통해 캐나다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자본주의의 허점과 노동자를 무시하고 있는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가 나날히 개선되는 대신 정부가 도덕가치를 잘못 판단해 연약하고 가난한 이를 돕고 구제하기 보다 이익추구와 이윤성장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최우선 정책을 고용증대에 두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시세〉—

CN$1.00 = 625.98원
CN$1.00 = US81.59센트
금(런던) = $542.99
은(토론토) = $16.09/oz.

오늘의 예금금리(5/11부터)

기 간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한인신용조합)	시중은행
30일	7.25%		6.75%
90일	7.50%		7.00%
180일	7.75%	8.25%	7.25%
365일	8.50%	8.2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해소지업체
오메가시계 45%~50%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용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 3800 284 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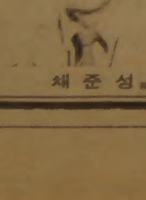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 3539

현영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ng I. Hyun 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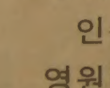
강학수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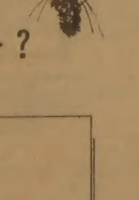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경 력—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준성





Joiner of Amigos for Joy of Arts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순간들을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하지 않으시렵니까…?
저희 JOA Studio는 Wedding Photo, Video Specialists로 여러분의 Wedding이나 각종행사등을 오래오래 생생한 추억으로 간직하실 수 있도록 사진이나 Video Tape에 담아 드립니다.
Best Quality Best Service
Satisfaction Guaranteed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샘플을 구경하고 싶으신 분이나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조영훈 299-4223
정재호 499-3893
윤성선 424-2082
「PHOTOGRAPH」
-Top Quality Studio Camera
-Special Effect Included
-Studio Portrait
-Video Analysis
-Variable Optinos
「*VIDEO」
-Many years of experience
-Best Camera & VCR used
-Auto music dubbing
-Both Format(VHS, Beta)
-Edited Tape
40 GODSTONE RD. #1204
WILLOWDALE 499-3893
JOA Studio
231-5351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신제품
$395
(파나소닉제)
PAPER -SERVICE- REPAIR
(2년 보증)
각종 저울, 계산기
특별세일
안수일
252-7377 (R)762-4536
822 THE QUEENS WAY
(퀸스웨이×이스릴픈)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e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5천여동 임대아파트 건설

온타리오주정부 4천만달러 투입

온타리오주정부는 4천만달러의 주택건설장려계획으로 5천여동의 임대아파트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프랭크·드리 사회복지장관은 임대 아파트들은 대부분 도시 중심지역에 새로 건설될 예정이며 그밖에 주택소유주들이 자기 집을 임대용으로 개조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약 1만2천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드리장관의 이 발표에 대해 건설업계와 노동업계는 모두 불만을 표시, 4천만달러만 가지고는 온타리오주 대도시의 임대주택난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볼링협회 리그전 폐막

새리그전은 8월이후에 개막

볼링협회(회장: 정용필)는 7일 금년도 정기총회와 리그전폐막 시상식을 갖고 신임회장에 정씨를 유임시키고 8월 이후에 새리그전을 개최키로 결정했다.

60여명의 회원이 모인 이날의 회의에서는 회원증가와 친목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각 종목에 대한 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그챰피온전
1등: 메이플·립팀
2등: K.C.팀
3등: 함렛팀
◉플레이오프챰피온: 노네임(Noname)팀
◉패자전우승: 레인보우팀
◉하이에버리지상
남자: 김홍배
여자: 장한샘
◉하이트리플상: 김홍배
◉하이싱글상: 김종섭

캐나다에서 가장붐벼

토론토국제공항

토론토 국제공항이 캐나다내에서 가장 복잡하고 승객이 붐비는 공항임이 10 캐나다통계국의 조사발표에서 밝혀졌다.

약300만명에 이르는 승객이 작년도 ¼분기동안 이곳을 출입, 몬트리얼 도발(Dorval)공항에 2배이상을 기록했다.

토론토공항은 80년과 81년의 경우 매년 1,400만명의 승객을 처리했다. 2위는 몬트리얼 도발공항, 3위는 뱅쿠버공항으로 나타났다.

신용조합 윤이사·김상무

서울 세계신용조합총회 참석

토론토한인신용조합의 윤호영이사와 김연수상무가 오는 6월5일 부터 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세계신용조합(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서울총회에는 세계 각국의 신용조합 Voluntary leader와 Professional Worker 5,000여명중 320명이 주최측인 한국신용조합연합회와, 아시아신용조합연합회에 의해 초청되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신용조합이 가장 발달되어 있으며, 따라서 아시아신용조합연합회 본부도 서울에 있다.

신용조합운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범세계화함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신용조합 총회는 지난해에는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

교 민 동 정

◆서춘원(한국식품서부대표)=11일 10년만에 어머니 안태자씨를 상봉하게 되어 싱글벙글. 남미 알젠틴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사회사업을 하고있는 안씨는 이곳에 온 여러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다고.

제5계절

시대사조

강 상 욱(메릴린치증권회사 근무)

◆강상욱씨

시대에는 그시대를 지배하는 시대정신, 즉 시대사조가 있다. 어떤 평론가가 사랑의 시대사조를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소설로서 풀이한 것을 흥미있게 읽은 적이 있다.

그는 고대의 고전주의 사랑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으로 "싸로메"를 꼽았다.

공주 싸로메는 같은 왕실에서 일하는 예언자를 사랑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예언자의 목을 따서 깨끗한 은쟁반에 바쳐오게 함으로 사랑을 청산한다.

중세의 낭만주의 사랑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으로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들었다. 베르테르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롯데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지만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자살한다. 총은 롯데가 건네주게 되었고 베르테르는 롯데의 체취가 담겨온 권총으로 죽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 할 수 있었다.

20세기의 현대사랑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상으로는 돈환을 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람둥이라고 욕도 하지만 그의 주장은 그렇지가 않다. 돈환은 사랑제일주의자로 완전무결한 사랑의 추구자다. 어떤 여자나 한 두가지에 있어서는 남보다 뛰어난 아름다움이나 매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돈환은 이 지고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무려 천의 여자를 사귀게 되지만 끝까지 완전무결한 사랑은 찾지 못하고 드디어는 나상 게 치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고전주의시대의 애정특성은 상대방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구심성및 내향성 성향이 지배적이었다면 낭만주의 시대의 특성은 자기가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원심성및 외향성 성향이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현대는 자기본위의 이기주의에 입각한 자기향락의 성향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에게는 싸로메처럼 사랑을 받으려하고 또 자기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아파하고 애타하기를 바라는 깜찍한 일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베르테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이해하며, 무조건 바치는 사랑의 일면도 있고, 또 돈환처럼 한상대에게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어, 새 상대에게서 새사랑을 한번? 하는 일면도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개성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남녀 혹은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다.

다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하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한 일면이 지배적으로 나타날때 바로 시대사조가 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한국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던 우리가 많은 여건이 바뀌어진 캐나다에서 캐나다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으며 살때 사랑이나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에서는 생각하지 못했거나 다른 성향이 이곳 이민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성향이 교민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이민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발전적인 것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32>

노파의 증언 ③

동원하게된 형사는 아직 서툴로 안된 예술이 형사였다. 나이든 노련한 형사보다는 오히려 젊고 경험없는 예술이가 함부로 부리기에 좋을것 같아 데리고 나선 것이었다. 그는 섞이 권씨로 말이 없고 고분고분했다.

양지마을까지는 택시를 이용했다. 연락을 받았는지 서장이 직접 나서서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마형사는 그렇게 되면 소문만 요란스럽게 나고 번거로울 것 같아 그 제의를 거절했다.

눈이 두껍게 쌓인 밤길을 택시는 느릿느릿 굴러갔다. 폭설이었다. 운전사는 몇번이나 차를 세우면서 더이상 못가겠다고 하는 것을 겨우 달래면서 가까스로 그곳까지 갔다. 이미 9시가 지난데다 눈까지 쌓여 거리에는 인적이 거의 끊겨 있었다. 아무 집에나 불쑥 들어갈 수도 없고해서 우선 지서에 들러 협조를 부탁했다. 이야기를 듣고난 지서순경은 난색을 표했다.

『글쎄…나도 여기 온지 얼마안돼서 이마을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여간 나가봅시다.』

순경은 그들을 데리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회관에는 방이 두개있었는데 한방에는 노인들이, 다른 한방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술자리를 늘어놓고 앉아 담소하고 있었다.

마형사 일행은 순경을 따라 노인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지서순경이 마형사를 노인들에게 소개했다.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나서 그는 찾아온 용건을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난 노인들 사이에 동요의 기미가 있었다. 마형사는 긴장하고 기다렸다.

가장 나이 들어보이는 조그만노인이 흠흠 헛기침하면서 입을 열었다.

『알겠소. 누구를찾는지알겠소.』

마인은 술을 죽이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알겠소, 누구를 찾는지 알겠소"

朴 男 그림

『서울 할망구 아닌가?』

다른 노인이 동의를 구하듯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맞어. 그 할망구야.』

조그만 노인이 고개를끄덕였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서 공부했다고 서울 할망구라고 그러제. 이젠 늙어서 이빨도 빠지고 얼굴도쭈글쭈글해.』

『젊었을 때는 예뻤제.』

『동네총각들 한숨깨나 쉬었제. 서울로 올라가 공부한다더니 중국인 왕씨하고 붙어산다는 소문이 났제.』

노인들은 어느새 화제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인은 그들이 마음대로 말할 수있게 가만 내버려두었다.

『착한 사람 일이란 알수없어. 그 명땡거리던 짐안의 외동딸이 저렇게 혼자 외롭게 살아갈줄 누가 알았어. 그러나 저러나 그할망구도 참 안됐어. 죽으면 시신 거두어줄 사람도 없으니말이야.』

『아니제. 그건 잘못 본거야.』

『잘못 본거라니, 그럼 자네가 거두어 주랑가?』

『아니, 그게 아니라…아들이 둘이나 멀쩡히 살아있다는데 시신 거두어줄 사람이 없다니 말이 안되지.』

『아니, 그게 정말인가?』

노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말을 한노인에게 쏠렸다.

외교관과 기자포함 밝혀져

피납여객기협상 중공대표단원중

(서울12일=연합)피납중공여객기의 송환을 위해 서울에서 한국측과 협상을 하고 되돌아간 중공대표단원중에는 중공 고위 외교관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한 소식통은 이 중공외교관은 중공외교부의 부국장급인 수광징(Xu Guang-Jiang)이며 그는 외교부 조약부국장자격으로 몇년전에 제네바에서 열린 U.N.해양법회의에 참석했으며 중·미공동성명을 초안하는데도 참가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중공측이 보낸 협상대표단의 신상명세서에는 그를 중공민간항공(CAAC) 관리청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외에도 명단에 CAAC직원으로 적힌 퀸웬·롱(Qian Wen-Rong)은 중공관영 신화사통신의 기자였음도 밝혀졌다.

홍콩인 데모

(서울2일=연합)홍콩에서 온 2명의 중국인이 12일 중공여객기 납치범 6명에 대해 관용을 베풀것을 요구하는 데모를 했다.

쥬칭찬(80)씨와 유홍유(35)씨는 이날 중앙청 앞에서 "납치범들의 망명열망을 존중하라", ''망명자는 형사범이 아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10분간 무언의 데모를 했다.

62년도와 68년도에 중국본토에서 홍콩으로 각각 망명한 이들은 홍콩에 본부를 두고있는 중공난민기구를 대신해서 한국정부에 납치범들에게 관용을 보이도록 호소하기 위해 11일 공로로 서울에 도착했다.

이들 2명은 또한 납치범들은 자유를 선택하기 위해 "올바르게" 행동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두환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휴대하고 있었다. 이들은 중앙청경비대에 연행되어 경찰에 넘겨졌다.

66,000달러부담

피납중공여객기의 공항사용료를 포함, 탑승객들을 위해 한국정부가 지불한 비용은 66,000달러에 달한다.

11일 정통한 소식통이 밝힌바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난민처리에 대해 국제관례에 따라 이 비용을 모두 한국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대북변호사회

대만의 대북변호사회는 6명의 중공납치범들이 기소될 경우 법적 지원을 하겠다는 전문을 서울변호사회로 보내왔다고 12일 서울변호사회측이 발표했다.

대북변호사들은 전문에서 "납치범 6명은 자유를 찾기위해 왔다. 우리도 이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도 법적 협력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인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납치범들이 기소될 경우 법적지원을 하기로 결의했다.

"뱅쿠버 공립학교학생 반수이상 영어외의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 학교위원회보고서 밝혀 —

(뱅쿠버)뱅쿠버의 학교위원회(School Board)는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시내 52,000여명의 공립학교 학생의 반수이상이 영어외의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중 1,200여명 이상은 전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1974년이래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학생이 24%늘어난 반면, 영어만 사용하는 학생은 오히려 39%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기간중에 학생수의 총계도 66,667명에서 21% 떨어진 52,578명으로 줄었다.

학교위원회는 연방정부로 부터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ESL학생들이 가정내에서 모국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특별영어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매상협회 반기

성인잡지판매규제법

메트로·토론토 소매상들은 10일 최종 통과한 성인잡지판매 면허료 인상과 위반시에 벌금형을 물게하는 새로운 법에 반기를 들고 있다.

메트로소매협회의 변호사인 허만·터카스트라씨는 "이 법이 캐나다 정의와 자유헌장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성인잡지규제법에 따라 성인잡지 스토아는 연35달러의 면허료를 내야하며 성인잡지는 최소 바닥에서 1.5m이상에 제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리도록 되어있다.

◆지난 1일 사망한 송중구씨의 미망인 권장혜여사가 11일 한국관에서 동우회 간부들에게 1천달러를 전하고 있다. 암을 앓는 환자지만 금년도 동우회 이사직을 수락했던 송씨는 운명전 서독의 지하 수천피트 탄광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동우들을 위해 1천달러를 희사하라고 유언했다. 송씨는 한인회관 기금및 소속된 한인천주교회에도 각 1천달러씩을 기증했었다. 권여사는 수표를 전하면서 "약소하지만 동우회를 위한 고인을 뜻을 받들어달라"면서 "내가 살아 있는한 동우회비(연20달러)도 계속 내겠다"고 말했고 동우회간부들은 "유가족은 준회원이므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답했다. 1천달러의 사용처는 미정이라고 서명식회장은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회장·이윤교부이사장·권여사·장남 송석호·이용구부회장.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 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부처님 오신날』
바자회 (선련사)

卍 품 목
● 불교서적과 잡지
● 불교음악(찬불가)및 범패녹음테이프
● 불상과 염주
● 선서화, 목판화(십우도), 불교그림엽서
● 먹, 붓, 벼루
● 한국가면(탈), 바가지예술,
비천상및 백제여인의 미소
● 탁본및 초의선사 사명대사 프린트
● 된장이외 식료품등 다수

卍 때: 5월21일(토), 22일(일) 12시~6시

卍 장소: 한국불교회 선련사
46 GWYNNE AVE.
(King & Dufferin)
TEL: 532-3491 533-6911

부흥성회안내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1983년 5월20일(금)~22일(주일)
오후 7시30분 주일 1시30분
■장 소: 키치너·워터루한인장로교회
388 OTTAWA ST. SOUTH, 키치너
■강 사: 양 희 철 목사(뉴욕 Forest 한인장로교회 시무)

1983년 5월

키치너·워터루한인장로교회
당회장 목사 정동석

교육전도사 초빙

본 교회에서는 기독교신앙이 독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으로서 기독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도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응모하고저 하시는 분은 이력서(국·영문)를 본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TORONTO 한인선교교회

*보내실 곳:
1 GREENLAND RD.
DONMILLS, ONTARIO
*문의처: 교회사무실: 444·8002
목 사 관: 759·8358
허 장 로: 298·4099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바둑 世界가 즐긴다

韓·日·中 동양3國 전유물時代 가고…

亞洲7·유럽20등 34國서 人氣

유럽 英國·獨日·和蘭등 팽팽한 戰力
日本 공식棋戰만 18개…팬1천만넘어
中共 프로制도입…女流세계 1人者도

바둑이 동양3국(한중일)의 전유물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바둑은 세계34국으로 퍼져 두뇌스포츠로 인기를 더해가고있다. 바둑이 보급된 나라는 아시아 7개국을 포함한 중남미 3개국, 유럽20개국, 북미 3개국, 오세아니아주 2개국등이다. 특히 동구 공산권7개국을 포함한 유럽20개국은 정기교류전을 갖고 바둑을 통한 민간외교와 국제간의 친선도모에 큰 몫을 하고있다. 중공을 포함한 유럽의 일부국가에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바둑입국에 열을 올리기도한다.

▲동양3국의 전유물이던 바둑이 세계34개국에 널리퍼져 성행이 되고있다.

美國에 5만명…소련선 都市대항戰도

바둑인구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의경우, 1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한국도 4백만명이 넘는것으로 보고있다. 애호인구를 추산키 어려운 중공의 경우 바둑보급을 위한 천재교육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자유중국이 60만명, 미국5만명, 캐나다 1만명 남미 5만명, 기타 각국에 각각 1천~1만명의 애호인구가 있는것으로 전해지고있다.

프로제도가 정착된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고 자유중국이 3년전부터, 중공이 지난해부터 프로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의 프로기사는 총 4백48명(일본기원3백11명, 관서기원1백33명, 경운사4명). 입신의 경지에 도달한 9단만도 64명(일본기원41명, 관서기원22명, 경운사1명)에 달한다.

여류기사도 30여명에 이른다.

한국기원소속기사는 현재 83명, 입신 1명에 여류기사가 2명이다.

자유중국은 기왕·국수·명인등 3개타이틀을 보유한 진장칭 4단을 비롯한 7명의 프로기사가 있으며 이밖에 일본에 유학중인 왕입성6단등 7명이 일본기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중공은 공산국가여서 프로제도를 두지않았으나 일본과 한국을 겨냥, 지난해부터 프로기사제도를 채택해 체육부산하에 위기회를 두고 9단 3명을 포함한 8명에게 프로단을 주었다.

중공은 68년에 일본을 방문, 소위「중공식포석」(우상귀 화점과 우하귀 소목, 우측 중앙점에 돌을 놓는 3연성의 변형포석)을 구사해 일본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진조덕이 위기회의 부주석자리에 앉아 바둑보급에 열을 쏟고있다.

5년전 세계아마바둑대회에서 무적의 기력을 발휘했던 중공의 섭위평9단은 세계여류 1인자로 손꼽히는 공선명6단과 결혼을 함으로써 중공의 바둑열을 엿볼수있게했다.

이에반해 자유중국은 일본기계의 강자인 오청원9단에게 대국수칭호를 내리고 임해봉9단에게는 국수, 제3의 오청원을 꿈꾸는 왕위성6단에게 소국수의 칭호를 붙여주고있다.

일본에 유학중인 외국기사가운데는 소련·미국·유럽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양인으로 최초로 입단한 사람은 미국인 제임즈·윈커씨(37세).

81년에 입단한 윈커씨는 미국에 프로기사제도를 도입하기위해 노력중이다.

서양인으로 두번째 입단한 기사는 미국인 마이클·레드먼드군. 20세의 나이로 82년 봄에 입단했다.

30년전부터 바둑을 도입한 유럽에는 전문기사가 한명도없다.

그러나 아마 5~6단급의 실력자는 1백명에 이르고 이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바둑보급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매년 7,8월께에 열리는 유럽바둑선수권대회는 올해로 26회째를 맞고있다.

오스트리아인 직바우어씨(아마3단)가 3년째 회장직을 맡고있으며 유럽각지역을 순회해가면서 대회를 열고있다.

이유럽바둑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한국인이다. 한국기원에서 프로4단을 취득한 이창세씨.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업을 하는 이씨는 15년째 유럽바둑계의 총사범으로 활약해왔다.

이씨의 주선으로 3년전 윤기현8단이 유럽바둑대회에 초청됐고 이어 하찬석7단, 정창현7단, 홍종현6단등이 유럽을 다녀왔다.

한국바둑을 유럽에 결정적으로 소개한 또 한사람은 독일유학생 남광호씨(아마4단).

남씨는 두달에 한번씩 발행되는 독일바둑잡지의 편집장을 2년동안 지냈다. 이잡지에 조훈현9단과 서봉수7단의 기보를 소개하면서 한국바둑을 유럽에 이식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

유럽바둑은 독일세, 영국세, 네덜란드세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소련에서는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사이에 도시대항 바둑전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미국·캐나다·호주·남미등지에서도 교류전을 갖고있으며 주로 일본과 한국교포들이 기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는 공식바둑기전이 18개. 기성전·명인전·본인방전을 3대타이틀로 꼽고있다. 여기에 왕좌전·천원전·십단전·기성전을 넣어 7대신문기전으로 친다.

77년에 창설된 기성전은 역사는 짧지만 연간 예산이 2억엔인데다 우승자의 상금액이 2천3백만엔으로 가장 많아 권위를 자랑한다.

특히 58세의 괴물기사 후지사와9단이 기성위를 6연패하고있어 모든 기사들의 선망의 대상이되고있다.

후지사와 기성은 일본의 정상급기사들이 40대이전에 전성기를 맞고 물러났으나 불사조와도 같이 50대부터 득도를 한듯 하시모또 가또이시다 임해봉 오오다께등 기라성같은 기사들의 도전을 물리쳐「기계의 괴물」「정년시대의 영웅」등으로 칭되고 있다.

『후지사와가 있는 곳에 술이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평소때는 주기에 젖어있다.

그러나 기성타이틀전이 있을때만은 1개월전부터 술을 일절 입에 대지않고 준비태세에 들어간다.

그가 77년께 조훈현을 보고싶다며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기내에서부터 술에 취해있었다. 짐보따리하나없이 뒷주머니에 술병만을 차고 있었다는 일화도 남기고있다.

일본기단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승승장구하고있는데 비해 한국기단은 반전의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

조훈현 서봉수의 양대산맥이 기계를 석권하고 있을뿐 제2의 서봉수마저 배출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애호가들을 실망시키고있다.

한국기단의 분발이 절실한 때다.

美國人 평균소득 年1만4백 달러

(워싱턴-UPI) 지난81년 미국인의 평균소득은 1만4백95달러로, 80년보다 11.7%가 증가했다고 8일 연방상무성이 발표했다.

연방상무성은 이러한 개인소득의 증가는 8.5%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의 인상보다 훨씬 앞지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무성 발표에 따르면 평균소득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미국 남서부지역과 록키산맥 주위 지역이며, 또 도심지역이 전원지역의 경우보다 크게증가했다.

도심지역의 개인소득은 1만1천1백88달러로 전국평균보다 7%나 높았으나 전원지역의 개인소득은 8천3백83달러로 전국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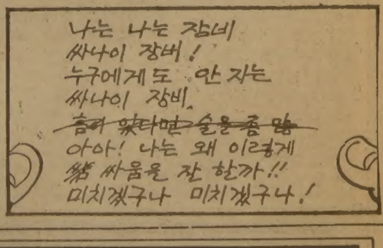
81년 한해동안 미전국에서 가장 개인소득이 많이 증가한 지역은 평균 1만6천4백67달러의 소득을 보인 텍사스 중부지역이다.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성화 초상 및 화화
549 BLOOR ST
☎:532-7909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 「人間市場」
●한국 事情·人脈을 캔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진짜 미식가는 KOREA HOUSE를 애용합니다.
일본요리 취급개시
(생선회·김초밥·생선초밥·회덮밥·돈무회등)
□도시락주문(개인·단체)
□스시바 곧 OPEN.
★최고의 진미
★저렴한 가격
RESTAURANT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무휴
오전11:00-오후11:00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대표 주재철

암살용무기 범람

『온』주 경찰당국 우려표명

온타리오주 경찰당국의 총기전문가들은 이달내에 연방정부에 「암살용무기(Assassination-type)」가 캐나다시장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캐나다는 각종 고성능 총기류의 최적 덤핑장소로써 중공, 소련, 체코, 이스라엘과 미국등이 판매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어떠한 반자동식무기도 완전 자동화무기로 신속히 변조할수 있으며 극단의 경우는 페이퍼 클립(Paper Clip) 하나로 간단히 자동식 무기로 개조할 수 있다.

온타리오주 경찰국 화기책임자인 빌라직씨는 보통 3분내에 자동으로 개조할 수 있다면서 위험성을 경고했다.

캐나다는 법으로 자동화무기의 소지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밀경로를 통해 각종 자동화 무기가 「온」주내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당국은 현재 중공제 AK-56/1형, 소련제 AK-57형, 체코산 VZ-58형, 이스라엘제 UZI형등의 장탄및 사격의 비교참고기록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무기들이 FN-FAL형이라고도 불리우는 무기로 쉽게 변조되어 캐나다를 비롯한 나토(NATO) 국가들 안에서 날개 돋친듯 판매된다고 말했다.

FN형 총기는 현재 시중에서 1,000달러 정도에 판매되고있다. 경찰당국자는 어떤 경우에는 100달러에도 살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FN형 무기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년 7월12일부터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캐나다는 경찰의 특별허가 없이도 증명서 하나만 가지고도 어디서든지 총포를 구입할 수 있다.

암시장에는 작년도에 오스트렐리아로부터 B.C.주를 통해 대량의 무기가 선편으로 입하되었다는 풍문이 돌고 있으나 사실여부와 규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FN형 총기가 캐나다에 어떻게 산재해 있는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소련제 AK-47형은 시중가 1,250달러로 판매되며 대부분 2,000달러 이내면 구입할 수 있다.

이스라엘제 UZI형은 훨씬 저렴한 800달러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자기방위용으로 날개 돋친듯 팔리는 실정.

미국의 한 전문가는 이 총기의 원형은 이스라엘 군에서 생산되었으나 변조되어 시중에 상업용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UZI형은 반자동으로 25구경, 32구경의 탄환을 장전, 사용할 수 있다.

변조된 총기는 약간의 변형만으로도 간단히 조작하게 되어있다.

미국산 잉그램(Ingram) M-10 피스톨도 역시 쉽게 변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음기(Silencer: 소리를 제거하는 장치)도 300달러면 구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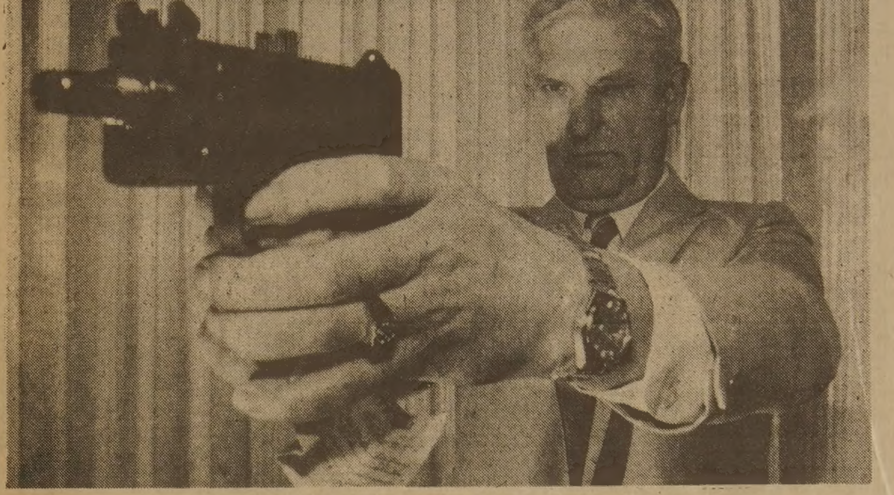
또 대부분의 총기에는 어떻게 변조하는가의 설명서가 붙어있다.

1981년도 캐나다는 자동소총의 대량수입으로 법석이었다. 그해의 총기수량은 전년도의 2배가 넘는 18,000정에 달했고 가격으로 환산해도 200만달러를 상회했다.

한편 반자동 피스톨은 약간 주춤했으나 7,250정에 역시 100만불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나타난 것일뿐 자세한 내용은 어느 누구도 추측할 수가 없다.

캐나다내에는 1982년말 현재 776,323건의 총기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중 온타리오 내에만 271,000정이 등록되어 있다.



◆온타리오주경찰의 총기담당 빌·라식씨가 미국제 잉그램(Ingram) M-10형과 똑같은 사격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총이 반입될때 쉽게 자동식으로 변조 조작할수 있는 안내서까지 부착되어 있다. 변조할수 있는 시간은 5분이내. 캐나다는 현재 무기 불법거래의 각축장으로 각종 총기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교 민 동 정

◆심재환=전 캐나다체육회장, 한인신용조합이사장등을 지낸 심씨는 지난 3월하순 사고로 오른쪽 팔목을 크게 다쳤다가 최근에는 많이 나아 바깥 출입도 약간씩 하고 있다. 휴가중이었으나 회사(AP 파트회사)의 특별요청을 받고 잠깐 출근, 생산계획수립을 위해 재고검사를 하던중 지게차 운전사의 실수로 부상을 입었다.

『인종차별과 이민생활』 〈상〉

김보경박사

★편집자주 … 이글은 지난 7일 몬트리얼에서 열린 제7차 캐나다한인학자회에서 소개된 김보경박사의 논문을 전재한 것이다.

◆김보경박사

우리들이 보통 키큰 사람은 싱겁다든가,발이 크면 도둑이라든가 하는, 사람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선입견을 갖는 것과 비슷하게 개인의 성별, 출신지, 성씨, 종교, 직업, 교육, 나이등에 따라서도 그 개인을 깊이 알아볼 여유없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려니 판단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렇게 사람이란 피차간에 외형적 특색에 의하여 쉽사리 판단하고 판단받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될수 있는대로 남이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외형적 측면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다. 정형수술을 하고, 유행에 따른 옷차림을 하고, 사투리를 고치고, 때로 작명가에 가서 이름을 고치는것 등은 모두 이와 관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족적 편견이나 차별도 위와 비슷한 현상에서 온다. 옛날 서양사람들이 통상좀 하자고 조선에 왔을때,그 생긴 꼴을 보니까 하도 도깨비 같아서 말도 부쳐보지 않고 내쫓아 버린 일이 있다. 백인들에게도 동양인은 도깨비같거나 원시인같이 보일지 모른다.

개인에 대한 편견이나 어떤 집단, 또는 민족에 대한 편견은 개인자신의 본능적 반응으로 보기보다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배운바가 더 크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한국에 있을때 쥬이쉬에 대하여 배운것은 예수와 그 열두제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서 오히려, 유대인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져왔지만, 서양에 와서 이곳 사람들이 무엇하면 "그사람 쥬 이지", 하는 말을 듣고 우리들도 쉽사리 "쥬" "쥬"하는 얘기를 한다. 물론 우리중엔 "쥬"인 장사꾼에게 욕본 사람도 있겠지만 유대인과 한번도 거래해본 일이 없는 사람도 유대인을 그렇게 잘 아는양 나쁘게 말하는 것도 듣는다. 어린애들이 흑인, 황인, 백인 할것 없이 잘 어울려 놀다가도 점차로 성장해 가면서 민족적배경에 따라 각각 그룹을 형성해 가는것등도 부모와 사회의 민족적편견에 영향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심리학자인 Zimbardo는 인종적편견의 특색은

첫째,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를 둔 타인종에 대한 태도, 가치관, 또는 신념으로서,

둘째, 일단 그러한 편견이 형성되면 그후 보다 완전한 정보가 주어진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며,

세째, 그러한 편견은 주로 타인종을 자기가 속해있는 인종집단에 비하여 열등한 계급내지 그룹으로 보려는 현상이며,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편견에 의하여 야기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등은 우리들의 주변에서 언제나 보인다. 우리들이 그러한 편견이나 차별의 희생자도 되지만 우리들도 쉽게 편견을 가지고 남을 볼 수 있다.

관계에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볼수 있다는것 등에서이다.

민족적 편견이나 차별주의는 개인의 일반적 태도에서도 보일 수 있고 신문, 잡지, TV등 매스콤속에서도 보일 수 있고 그 국가가 제정한 법률속에서도 볼수 있다. 국가나 사회나, 어떤 집단이 인종차별을 공공연히 인정하거나 인종차별을 권장할 때 이를 인종차별주의, 또는 Racism이라 한다.

일본정부가 재일동포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 또는 이차대전중 독일의 나치정권이 유태인을 박해한것 같은 것은 Racism의 극단적인 예이다. 미국의 흑인차별등도 마찬가지이다. 캐나다도 인종차별주의 경향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것은 아니다. 우선 인디안과 에스키모문제가 있고, 또 인종차별적 사회정책이 여러면에 숨어있으며, 또 역사를 살펴볼때 인종내지 민족차별이 사회정세에 따라 노골화된

때문이다. 한 인종집단이 다른 인종집단에 의하여 차별을 받게 되면 그 차별의 대상이 되는 소수집단에 속한 개인은 자연히 교육적 기회, 고용적기회, 사회참여의 기회를 잃어 그 사회에서 점차로 고립된다.그래서 급기야 이 집단은 그 사회의 말단의 위치로 밀려간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소수집단에 속한 개인은 자연히 다음과 같은 심리적 현상을 일으킨다. 첫째,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므로써 자기가 가진 교육, 경험, 기술등 실력에 의하여 자기가 평가되기보다

"편견은 본능적반응이기보다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배운바 크다"

남자이냐 여자이냐에 따른 성에 대한 편견도 우리가정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남한출신이냐 이북출신이냐에 따른 편견도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 또한 우리가 백인들이 갖는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상으로 우리자신들이 다른 유색인종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수도 있다.

아마 우리들이 백인이상으로 흑인이나 인도인이나 그외 다른 소수민족을 멸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첫째, 우리 한인들이 단일민족으로서 타민족과 동등한 입장에서 섞여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타민족을 차별할 가능성이 크고,

둘째, 우리들은 고금을 통하여 민족적 단합을 언제나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민족을 자연히 배제하려는 태도를 형성해 왔을 가능성이 크고

세째, 우리들은 타민족의 세력에 눌려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타민족에 대하여 불신할 가능성과 동시 자기보다 강한 세력에 대하여서는 사대적이 되고 약한 민족에 대하여서는 멸시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고

네째, 우리들이 살아온 사회가 계급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인간을 우위

적도 여러번 있다. 예를 들어,이차대전중 캐나다정부는 일본계 캐나다시민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강제수용소에 끌어 넣은 일도 있고(이게 바로 1942년의 일이다.) 아시아인종에겐 개인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도 있다. 오늘날도 캐나다가 무인종차별 이민정책을 쓴다고 하면서도 나라에 따른 이민 코터제며 국가별 이민관 파견에 차이를 둠으로써 백인계 이민은 장려하면서도 동양계며 아프리카계의 이민은 억제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또 주에 따라 인종주의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현 퀘벡주는 우리 이민자들의 입장에서 볼때 불계 백인위주의 인종차별주의가 보다 현저한 것이다. 즉 현 퀘벡의 불어단일주의 언어법은 복합주의의 오타와 정책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캐나다가 현재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하여 인종차별이 적다고 볼지 모르지만 이러한 인종차별주의를 억압하는 복합주의등과 같은 정책이 얼마나 영구적으로 지속될지 아무도 보장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집권당의 정책에 따라 정책이 변할수 있고,또 사회 내지 경제적 변동에 따라 Racism이 더 노골화될 가능성도 있기

인종적배경에 의하여 평가되면 교육이며 기술이며 실력을 추구할 동기가 없어지고, 둘째, 사회제도나 법이 다수집단 보호 위주로 존재한다고 생각될때 소수집단은 그 법이나 사회제도를 구태여 존중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남과 동시 비록 반사회적 방법으로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태도를 갖게 되고, 세째, 다수집단 속에서 계속 안전에 대한 위협을 당하게 되면 보다 항구적인 계획이라든지, 자기성장의 기회를 잃고 모든것을 단지 생존의 수단으로만 보게되는 생의 무의미성을 경험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감출수 없는 피부색깔등에 의한 인종차별로 자기가 열등한 인간으로 취급될때 자연히 새사회에 동등한 자격으로 통합되려는 태도보단 자기들끼리 게토를 만들어 본사회와는 고립된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꼭 인종차별에 의하여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 특색이며 민족적 배경이며, 피부색깔은 자기가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즉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하여 계속 차별을 당할 때 더욱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이다. (계 속)

〈연재소설〉

혼돈

글·어대준 그림·최미경

제2편 착수

영수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쓰러져 있는 잭을 내려다 보았다.

뛰며 앞차기로 오른쪽을 공격하는척 하면서 돌려찬 것이 그의 왼쪽 턱에 명중했음인지 턱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너는 오늘 이후로 두 발로 걷지 못하리라."

영수의 몸이 다시 기합과 함께 솟아 올랐다.

"이야앗!"

"아으윽!"

"이앗!"

"으-악"

그는 힘껏 솟아올랐다. 발을 삼각형 모양으로 앞으로 잡아당겨 뒷꿈치를 예리하게 한 다음 내려오면서 잭의 양쪽 정강이를 뭉개 버렸다.

잭의 양쪽 다리가 파르르 떠는 것을 보고 있던 영수는 소매로 이마의 땀을 문지르고 고개를 드는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경차가 빨간 불을 번쩍거리며 오고 있는 것이 유리창너머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뒷문을 박차고 뛰었다. 요란한 호르라기 소리와 함께 순경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바로 등뒤에서 들렸다. 지리에 어두운 영수는 그가 어느쪽으로 뛰고 있는지도 몰랐다. 쫓고 있는 순경들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큰길보다는 복잡한 골목길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불규칙하게 방향을 바꾸며 뛰었다. 호르라기소리와 쫓아오는 소리로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조금 안심이 되던 마음이 꽉 막혀버렸다. 뛰어오던 골목이 바로 앞에서 끝나고, 앞과 옆에는 우중충한 건물들이 타버티고 서있었다.

"서라! 서지 않으면 발사한다."

순경들은 고함을 치며 다가왔다.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멈칫 서있던 영수의 시야에 바로 앞건물의 철제 비상계단이 들어왔다. 그는 그대로 잡힐 수 없다고 다짐하며 계단을 뛰어올랐다. 3층건물의 계단을 거의 다 뛰어올랐을 때 바로 건물밑까지 도착한 순경들이 후래쉬를 비추며 내려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내려와! 올라가 보아야 소용이 없어."

그러나 마지막 계단까지 뛰어오른 영수는 다시 옥상으로 오르기 위하여 계단의 기둥 위에 올라서 있었다.

손을 뻗어 옥상의 가장자리를 잡으려 했으나 손이 미치지 않았다. 순경 하나가 욕설을 퍼부으며 계단을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영수는 몸의 균형을 잡은 다음 몸을 솟구쳐 간신히 옥상의 가장자리를 붙든 다음 힘겹게 옥상으로 올라갔다.

엉겁결에 옥상까지 오르기는 했으나 옥상위에는 몸을 숨길만한 곳도 피할 수 있는 출구도 없었다.

"나는 이대로 잡히고 마는가?"

재판소, 형무소, 아버지, 어머니, 미영이, 애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잡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뛰어내릴 것을 결심하고 장소를 물색했다. 낙하지점으로 잔디밭을 찾았으나 도심지에 잔디밭이 있을리가 없었다.

"맨땅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그는 숨을 할딱거리며 옥상의 가장자리를 뛰어다니며 맨땅을 찾았다.

다행히 건물의 한쪽 반면이 맨땅인 것을 발견했다. 그가 뛰어내리기 위해서 옥상의 가장자리에 섰을 때 순경이 끙끙거리며 옥상을 오르는 소리가 계단 쪽에서 들려왔다.

〈계속〉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
신청은
533-2361
토론토 한국일보

제2회 영남향우회 친선골프대회

◼일 시 : 1983년 5월21일(토) 11시정각
◼장 소 : 리치몬드 · 힐
◼참가자격 : 한인 골프(예상인원 60명)
◼참 가 비 : $35(그린피및 디너)
◼시 상 : 그로스챔피온(애뉴얼트로피)
그로스 1·2·3등 트로피
네트A조 1·2·3등 트로피
네트B조 1·2·3등 트로피
네트C조 1·2·3등 트로피
LONGEST DRIVE
MOST HONEST등 기타상품 다수

1조 (Tee off 11시)
안수용, 주형희, 이중대, 최용권
2조 11시8분
김진수, 김형도, 최상철, 이상철
3조 11시16분
차선행, 이무교, 여동환, 김인환
4조 11시24분
김영대, 차선겸, 배경락, 김만구
5조 11시32분
박승락, 김태진, 김덕수, 백운산
6조 11시40분
김현모, 박영철, 최호영, 윤여경
7조 11시48분
이호영, 조기연, 이동환, 조정대
8조 11시56분
조병역, 신중화, 장필규, 서명식
9조 12시4분
김병수, 허정수, 김종호, 이한영
10조 12시12분
박태식, 이돈영, 최영식, 김시승
11조 12시20분
정창헌, 김이열, 배기덕, 김칠웅
12조 12시28분
박경덕, 이학천, 유종철, 김 평
13조 12시36분
최이락, 김태신, 신성훈, 정상우
14조 12시44분
김남헌, 송종남, 최무언, 우홍정
15조 12시52분
이기항, 이기훈, 곽창수, 이건영

★당일접수마감 : 오후1시정각

주최 · 영남향우회

被拉中共승객 어제出國

特別機便 협상代表·승무원등 百16명

中共여객기 被拉불시착사건처리를 위해 직접교섭을 벌여온 한국과 中共은 협상만3일만인 10일상오 10시38분 양국의 공식國號를 明記한 合意覺書를 교환함으로써 中共여객기의 승객, 승무원은 不時着한지 만5일만인 이날하오3시45분 中共대표단과 함께本國으로 떠났다.

이날 합의에 따라 中共대표단이 타고온 보잉707특별기편으로 出國한 中共人은 대표단 21명과 피납기의승객, 승무원95명등 모두1백16명이며 센투(沈圖)中共대표는 출국에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中共대표단중 機體인수를 위해 승무원 10명과 의사 1명(劉安) 통역관1명(李克利) 그리고 부상자중 重傷1명은 서울에남고 납치범 6명도 국내에 남아 재판을 받게된다.

韓·中共대표단은 이날 상오10시30분 서울 新羅호텔 영빈관에서 마지막 전체회담을 갖고 그동안의교섭 결과를 담은 9個項의 覺書에 署名, 교환했다.

양국은 이날 교환된 각서에서 그동안 異見을 보여온 國號사용 문제에 관해 署名欄에 「大韓民國 外務部 제1次官補 孔魯明」「中共人民共和國 中國民用船空總局 總局長 沈圖」라고 明記했고 대신 本文에는 한국측을「한국당국」中共 측을 「沈圖총국장」으로 표현했다.

또 拉致犯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각서에 일체언급치않아 中共측은 납치범등에 대한 權利留保가 배제돼 한국측의 재판管轄權 행사를 사실화한 셈이 됐다.

양국은 특히 이번 합의의 각서에 『양측은 이번 사건처리과정에서 충분히 발휘된 상호협조의정신이 今後 양측이 관련되는 긴급사태발생시에도 계속 유지되어야한다는 그들의 희망을 표명했다』는 條項(제9항)을 넣어 國交가 없는 양국관계를 사실관계로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것으로 보인다.

지난5일 中共여객기가 불시착한 이틀뒤인 7일낮 中共대표단이 入京함으로써 시작한 양국대표단의 직접교섭은 8일 하오▲승객·승무원및 機體의 [illegible] 송환▲납치범에 대한 한국측의 재판관할권행사등 중요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했으나 中共측이 합의문서에 표현된 大韓民國」이라는 國號사용과 署名대표의 자격문제등에 한국측과 異見을보여 6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벌이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中共측이 10일새벽의협의에서 國號는 서명란에 표기되어도 무방하다는 긍정적인입장으로 후퇴함에따라 4일간에걸친 교섭이 완전타결되게 됐다.

殘留中共人名單은 다음과같다.

◇拉致犯(6명) ▲卓長仁(26·주모자·遼寧省물자국직원)▲高東卒(28·여·卓의애인·〃)▲王彥大(29·물자절약환경보호설비창근무)▲安健偉(24·瀋陽체육학교보위처보위원)▲姜洪軍(23·외국부역물자구매원)▲吳雲飛(35·〃)

◇重傷 승무원▲王永昌(22·통신원·국군통합병원입원)

◇被拉機인수要員▲日景麻(56·기장)▲李基生(47·〃)▲徐志鵬(47·항법사)▲吳起正(46·기관사)▲黃明(63·〃)▲成时友(35·통신사)▲劉蕊蕃(57·지상정비사)▲花家晉(民航안전부부장)▲梁吉賢(50·지상정비사)▲張來友(43·〃)▲成長富(44)

◇韓-中共에 새 길을 남기고 떠나는 中共人들 中共여객기 被拉불시착사건은 지난 40년간 얼어붙었던 韓·中共관계를 解氷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진은 양국간의 마라톤協商끝에 10일 覺書교환이 끝난뒤 이날하오 中共대표단과 승객들이 귀국을위해 특별기에 오르고있다.

韓·中共 國號明記 각서교환
앞으로도 긴급事態엔 협조

覺　書 (全文)

1, 105명의승무원과 승객 (名單別添) 이 탑승한 中國民航 소속 항공기 1臺 (트라이던트, B296호커 시들리 121) 가 1983년 5월5일 한국 春川비행장에 不時着하였는바 同航空機는 6명의 拉致犯들에 의하여 被拉된것으로 밝혀졌다. 9명의 승무원중 2명이 범인들에 의하여 銃傷을 입었다.

2, 韓國當局 (The Korean Authorities)은 승무원과 승객의안전을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탑승자들을 人質상태로부터 구출하였다.

3, 2명의 負傷者는 수술과더불어 신속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회복중에 있다.

4, 中國民用航空總局 沈圖 總局長과 일행은 本件에 관하여 韓國當局과 교섭하기 위하여 1983년 5월 7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5, 沈圖 總局長과 일행은 입원중인 2명의 승무원과 서울시내 호텔에 留宿中인 기타 승무원및 승객을 방문하였다.

6, 兩側은 관계 國際協約의 규정에 의한 양측간의 교섭을 통하여 被拉항공기의 승무원, 승객과 機體를 가능한한 조속히 송환하는데 합의하였다.

7, 부상자중 重傷을 입은 1명은 서울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될때에 歸還할 것이다.

8, 沈圖總局長은 機體의 안전과 승무원및승객의 건강, 그리고 부상자의치료를 위하여 한국이 취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韓國측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9, 兩側은 이번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충분히 발휘된 相互協調의 정신이 금후 양측이 관련되는 緊急사태發生時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희망을 표명하였다.

1983년 5월10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大韓民國 (The Republic of Korea)	中華人民共和國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中國民用航空總局 (CAAC)總局長
外務部第1次官補 孔魯明	沈圖

"拉致犯은 국내법처리"

許文公차관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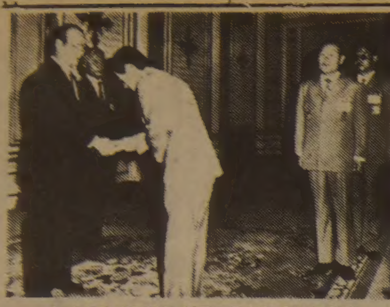
정부대변인은 10일 상오 中共여객기 被拉不時着사건 처리 매듭에 관한 정부입장을 밝히고 성명을 발표, 『이번사건을통해 우리국민들이 未修交國의 災難을 당한 사람들에게 베푼 너그러운 이해와 친절, 그리고 이를통해 보여준 평화애호의 정신에 깊이 共感하며 사건에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원만히 마무리 된것을 국민과함께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許文道문공차관은 이날 韓·中共간에 合意覺書가 교환된후에 발표한 이성명에서 『정부는 이번 被拉여객기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양국간에 國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人道주의와 이념을 초월한 善隣정신에 입각, 一貫해서 국제협약을 존중했으며 不意의피해자인 승객과 승무원에게도 최선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中華人民共和國측과 나흘간에 걸친 被拉항공기 처리문제의 협의를 원만히매듭짓고 즉시 歸還이 가능한 승객, 승무원과 機體를 인도키로했음』을 밝히고『국제협약과 관례에따라 항공기의 납치와 관련된 犯法者들은 대한민국의 司法절차에 의해 처리할것이며 負傷으로 殘留한 승무원은 이동이 가능할정도로 회복될때 돌아가게될것』임을 확인했다.

入國항로逆順歸航

中共대표단과 승객·승무원을 태운 중공특별기는 入國할때 밟았던 항로를따라 逆順으로 歸航했다. 특별기는 이날 하오3시30분 金浦공항을 떠나 濟州道 남단까지 한국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한후 公海上의 아토피—아피토—아까다—上海를 거쳐 北京으로 돌아갔다.



◇全斗煥대통령이 전국교도소장, 청소년원장등을 접견하고있다.

"不條理뿌리 뽑아야"

全대통령, 전국矯正기관장 초치·격려

全斗煥대통령은 10일하오 裵命仁법무장관을 비롯한 각교도소장과 청소년원장, 법무부간부등 전국矯正기관회의참석자56명을 청와대로 초치, 다과를 베풀고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교도소와 소년원주변에 아직도 부조리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없지않다』고 말하고 『그러한 부조리에 대해 뿌리뽑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우리의 교도시설들이 特수상황에비추어 敵의 특수부대에의한 공격목표가 될수도 있기때문에 관계기관과의 지원체제를 강화해 有事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出所者가 刑을 마친뒤 재생활개척에 도움이되도록 직업교육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기능人力의 필요성을 감안해 이분야에대한 교육에 노력을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자리에는 裵命仁법무장관과 丁海昌차관이 배석했다.

터키工技장관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10일상오 청와대에서 터키의 메메트·투르구트工業기술성장관을 접견하고환담했다.

이자리에는 金東輝상공장관과 투나바시駐韓터키대사가 배석했다.

民間교류 해야
沈圖 中共대표

中共수석대표인 센투(沈圖) 民航總局長은 10일 출국직전 『韓·中共간의 민간교류는 해야할것으로 본다. 그것은 다만 시간문제일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투대표는 이날 新羅호텔에서 한국대표단과의 午餐도중 양국간의 민간관계교류의필요성을 밝힌 한국측의주장에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한참석자가 전했다.

……覺書란…… 外交文書에는 문제된 事案의 성격과 비중에 따라 여러가지 형식이 있다. 10일 韓·中共대표간 署名교환된 覺書(MEMORANDUM)는 事案에 대한 自國의 희망이나 의견을 담는 문서를뜻하는 것으로 사실의 세밀한 진술 또는 사실에 입각한 論爭의 기록에 흔히 사용되며 외교적인사말이나 結文이 없는것이 정식(公翰)과 다르다. 물론 覺書는 條約의 下位문서로서 강제력이나 효력에있어 條約보다는 약하다.

社會漫評

좌우간… 中共全域에…

地平線

탁구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듯하지만 현재까지로는 1880년대 런던의 어느 스포츠용구제조업자의 캐털로그에 보이는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핑퐁」협회가 국제적으로 생긴것은 1902년이었다. 하나 그때는 잠시만 유행하다가 말았고 본격화한것은 1921년이니 역사가 그리 오래지는 않다.▼그런데 지금까지의 국제경기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탁구선수는 1958년 서인도군도 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자메이카대표 조이·포스터양으로서 8세에 불과했다. 또 세계최장의 시합은 1936년 체코의 프라하서 열린 세계선수권 남자단체전 결승. 오스트리아대 루마니아의 대전으로 4일간에 걸쳐 11시간을 싸운것이다.▼도오쿄 요요기체육관에서 막을내린 제37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최종일, 여자개인단식결승전에서 우리의 梁英子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다. 중공의 강호 曹燕華에게 3대1로 아깝게 지기는하였으나 세계선수권대회 개인단식에서 2위를 차지한것은 한국탁구사상 처음있는일이었다.▼이토록 선전을한 梁선수의 경우, 정작 코칭스태프는 어깨의 부상으로 시달림을받고있어 큰 기대를 걸지 않았었다. 한데 되려 과감한 스매싱과 강렬한 정신력을갖고 싸워 세계적으로 이름이난 톱랭커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우리나라 탁구가 단식결승에 처음 상륙하는 교두보를 구축하고 말았다.▼이와 같은 기대이상의 성과는 높고 두터운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었던 중공의 보루도 다져진 기량과 백절불굴의 정신력으로 능히 무너뜨릴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데서 큰뜻을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정상의 영광에 한발 다가선 셈이다.▼또 이런 성과가 전적으로 梁선수의 훌륭한 자질과 정신력, 기량에 힘입은것이기는하나 탁구협회의 적극적이고 전진적인 운영자세의 한 결실인 것을 저버릴수도 없다. 탁구협회는 고등학생이던 무명의 梁선수를 81년 유고의 노비사드대회에 출전케 했던것이다. 목전의 승패보다 먼 후일을 내다보는 눈이 중요함을 알게한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illegible]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SHANGHAI
레스토랑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334 SPADINA AVE.
596-7311

씨알한국인학교
The See-All Korean School
여름학교 안내

●신청처 : 150 Madison Ave. Tor. M5R 2S5 ●학교장소 : 250 Brookdale Ave. John Wanless 학교

— 데이케어 프로그램 —

▲연령 3~4세
▲기간 7월4일~8월26일(8주간)
▲시간 오전8시~오후6시

금년 처음으로 3,4세 어린이들을 위한 데이케어 써비스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한국인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영어의 환경(유치원)에 준비과정없이 들어가는 것은 어린이 심리현상에 큰 영향을 주는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과정을 돕기 위해, 영어도 가르치며 한국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어린이들을 보살피려는 것이 이번 탁아소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Superviser Diane Morris씨를 모시고 영어교사1명, 한국인교사 3명으로 32명의 어린이들을 받아 드리겠읍니다.

1주에 $50(간식포함, 점심은 각자준비)

▲신청 원하는 요일을 기입하셔서 수표와 동봉, 위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받겠읍니다.

— 국민학교 프로그램 —

▲연령 5세~12세
▲한국어 : 무료, 한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시기가 여름학교입니다. 10년이상의 경험이 풍부한 교사진과 토론토교육국의 보조로 이루어집니다.
▲특수프로그램 : 한학생이 두과목을 택할 수 있음. 영어, 수학,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무용, 태권도, 축구 등 8과목에 전문교사진이 지도함.
▲수영 : 일주일에 2번씩 토론토교육국, 또는 시경영 수영장에서 모두가 수영을 즐길 수 있음.
▲기간 7월4일~8월12일(6주간)
▲시간 오전9시30분~오후3시 30분
▲야외활동 : 운동회, 소풍, B.B.Q., 졸업파티등을 통해 즐거운 금요일을 보냄.
▲수업료 : 한학생 $180, 둘 $350, 셋 $500.
▲학교버스 : 4대의 학교버스를 운영합니다. 신청에 따라 노선이 정해집니다. 버스신청은 전화 :441-2986, 6월1일까지, 한학생$150, 둘$290, 셋$400.
▲신청 과목을 선택하셔서 수표와 동봉, 위의 주소로 6월15일까지 보내 주십시요.

— 중학교 프로그램 —

▲연령 GR. 7~Gr. 10
▲기간 7월4일~8월12일(6주간)
▲시간 오전9시30분~오후3시 30분
▲한국어와 Band : 무료, 오후1시-3시 30분 자녀들이 흥미있게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밴드부를 신설하였음. 악기가 없는 학생은 학교에서 Rental을 알선해 줌.
▲특수프로그램 : 과목당 전문가로부터 지도받음. 한교실에 4-10명 제한.
▲콤퓨터Commodor 64 디스크, 프린터 모두 준비되어 있음.) 지도교사 박충길 $140
▲불어회화 : Mr. Desjardins $140
▲영어엣세이 : Dr. Rinaldi $140
▲수학 : Mr. Burwell $140
▲음악이론 :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Preliminary 또는 Gr.1 두과목을 택할땐 $250
★학생이 4명이하일땐 과목취소.

한국어와 예능의 전당
씨알한국인학교
The See-All Korean School

30여年 단절의壁 사흘만에 뚫었다

「不時着」에서 「覺書교환」까지 曺淳煥·鄭環喜위원긴급對談

「긴급災難」넘어 政治발전가능성 직접協商제의 變化조짐 일지도

▲曺淳煥위원=어린이날 中共여객기가 납치범들에 끌려 春川에 불시착한 사태가 발생한후 한국과 중공은 비교적 신속하게 협상을진행, 합의각서에서명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해결했다고 봅니다. 이는 한국과 중공간 휴전협상후 30여년만에 단절의 벽을 무너뜨렸다는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수있겠지요.

▲鄭環喜위원=이번 납치사건은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고 그만큼 우리에게주는 충격도 컸다고봅니다. 신문·TV등 매스컴에 비춰진 중공사람들은 정치뿐아니라 모든면에서 아주 보수적이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예를들어 술을 권하면 『많이 좋다』 그러나 우리 술이 더 좋다』고 하는등 자신을내세우는 태도로 일관했지요. 산업시찰과 관광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자신들을 극구 변명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볼수있었어요.

이땅에 발을 디딘 중공인들은 지난30년간 한국과 중공의 대화단절이 가져온 격차를 피부로 느끼게 했지요.

우리는 이번사건이 중공이 계획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발적인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냉철히 숙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曺위원=물론 우발적인 사건이지만 현재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정세에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납치사건이 터지자 중공측은 제3국을 통해간접적인 중재방식을 시도하지않고 직접협상테이블로 달려온 것은 앞으로 그변화가능성을 예고해 주고있다고 봅니다. 중공이의도적으로 한국에 접근한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사건으로 中共이 한국에 문을 닫아두고 있으나 잠그지 않았다는것이 사실로 드러났읍니다.

▲鄭위원=중공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은 北京─平壤─모스크바라는 3각관계란 구조적이고 역학적 측면이 중시됩니다. 중공여객기납치사건으로 시작된 한국과 중공의 대화가 과연 그같은구조적인 3각관계를 변화시킬수있느냐를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의 외교기술은 아쉬운 점이많았지만 대체로 성공적인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피납여객기의 승객은 일종의 피난민인데 일류호텔에 투숙시키고 최고급요리로 대접한는등 「過恭」하지 않았나하는 일부여론이 있었지만 중공과의 특수한 관계, 또 平壤을 의식할때 잘한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중공과의협상은 미국 일본 서구국가들과만가져왔던 우리의 외교무대를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있는 중공으로 건국후최초로 옮긴 어려운 것이었지요.

▲曺위원=우리측은 협상과정에서 인도주의정신과 상호협조의 정신아래담담히그리고 신속하게 잘대처했다고 생각됩니다. 79년 故朴대통령시해사건이 있은후외국의 정치분석가들은 한국이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는데는 2~3년이 걸릴것으로 내다봤어요.

제5공화국정부가 80년 북한에대해 대화제의를 했을때 북한은 거부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안정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북한이 거부한 것으로 보았지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2~3년후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소련문화성고위관리와 관영타스통신간부가 한국을 방문한데이어이번에 어쨌든 중공대표가서울에 온것은 한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있고 국제적 지위가 향상됐다는 맥락에서 평가될수있다고 할 수있겠읍니다.

중공승객에게 우리시민들이 보여준 자연스럽고인정어린자세는외국손님을융숭하게대하는전통을과시국민역량을 보여준것이지요.

▲鄭위원=중공승객들이 떠나면서 눈물까지 흘리고 『편지하겠다』는등선심을 남발한 인상도 있었어요.

협상막바지에 양측이 국가칭호문제로 의견이 대립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타결한 것은 국제적으로 우리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중공과 우리관계는 中共이 장차 어떻게 나올것인가에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미 비적성국에 대해서 이념을 초월해 문호를 개방해놓고 있지요. 중공이 平壤과의 특수한 여건을 딛고 한국과의 관계를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읍니다.

韓·中共양국은 앞으로긴급재난및 구조등 제한된범위에서나마 공통된 문제들을 협의할수있는 터전은마련된 셈이지만 더 나아가 어떠한 관계로 발전해나갈 것인지는 한국보다는 중공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曺위원=본래 중공의 對韓태도는 「문을 닫아두되 잠그지는 않는다」는것이었어요. 이번에 중공이 서울로 직접 나선 것은 바로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지요.

올해들어 교차 승인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읍니다. 미국은 교차승인의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고있지만 이번 한국과 중공의 접촉은 장기적으로 교차승인방향으로 추진해나가자는 선결적인 여건조성으로 평가하고싶습니다.

▲鄭위원=이번사건은중공에대해 플러스的 측면과 마이너스的 측면모두를 포함하고 있지요. 마이너스的인 요인은 물론 현중공사회의 불안이 외부세계에노출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공이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 平壤과의 급격한 관계손상없이도 서울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불편한 平壤과의관계를 조절하는데 플러스的인 요인이라할 수 있겠읍니다.

이번 협상을 출발점으로 해서 중공이 86년아시안게임 88년올림픽의 서울개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도 모르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측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曺위원=이번 협상과정에서 그들에 가려진 부분이 북한의 처지에 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봅니다.

북한은 南北교차승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같은 그들의 입장에 中共이 동조할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는 10월의 서울IPU총회, 86년서울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등으로 북한의 국제적인 지위가 상대적으로 格下되어 있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中共과의 직접대화가 이루어졌다는것은 中共이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점쳐보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읍니다.

▲鄭위원=자료가 좀 묵은것이긴하지만 80년도 中共과 臺灣과의왕복교역규모가 3억2천만달러였읍니다. 이로 미루어 앞으로 한국과 中共간에 제한적이나마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경제분야에서도 가능일 것으로 봅니다.

▲曺위원=中共의 對한반도정책은 中·蘇분쟁과 관련하여 平壤을 자기편으로 삼기위해 될수록 平壤이 원치않는것은 삼가하는 것이 기본자세였읍니다.

또 2천년까지 中共을근대화시킨다는것이 中共당국의 당면목표이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가 이같은 근대화정책의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것이 中共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북한의경우 세습왕조라는 국내적인 문제때문에 국제적으로 행동의여지가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中共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밀고갈 가능성이 이번 韓·中共간의 협상을 통해 한층 표면화됐다고볼 수도 있겠읍니다.

【정리林鍾乾·崔海雲기자】

◇『문은 닫아두되 잠그지는 않는다』는 中共의 對韓기본정책이 이번韓·中共협상과정을통해 사실로증명되었다고말하는 曺淳煥㊧鄭環喜㊨논설위원.

◇微笑속 악수 被拉中共여객기와 승객의 송환문제를 놓고 69시간동안의 마라톤협상끝에 타결된 合意覺書를 교환한후 우리측의 孔魯明수석대표(左)와 沈圖 中共수석대표가 웃으며 악수를나누고있다.

韓·中共관계의 새章 <1>

被拉여객기 協商…合意각서의 意味

양국공식國號 明文化는 큰 의미지녀

제3세계·對共産圈 弘報에도 큰효과

우연히 날아든 中共被拉여객기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韓·中共간의협상은 양국간의 覺書교환으로 일단락되었다.

밤낮을 가리지않는 4일간에걸친 양국의 줄다리기협상은 길지않은 한장의각서를 남겼지만 양국의 공식국호가 明文化된 그覺書가 지니는의미는 매우중요하다.

이 각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외교文書는 아니지만 未修交상태인 양국간의 최초의 공식문서성격을 띠고있다. 이러한 공식문서에 우리측주장대로 양국의 公式國名을 그대로 表記한 것은 획기적인일로 양국은 실질상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한는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그동안 우리측은 합의문서 本文에 양측의 정식國號사용을 주장한반면 中共측은 國號사용대신 객관적으로 認知할수있는 표현을 쓰자고 고집, 이문제에 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않아 합의문서작성이 난항을 거듭했던 것이다.

결국 이문제는 쌍방이한발씩양보, 本文에는 國號를 사용치않되 서명대표자격에는 국호를 표현키로낙착됐다.

외무부의 한관계자는 양국의 國號를 정식으로 표기한데 대해 『이것이 국가승인이나 외교관계 수립을 뜻하는것은 아니지만 장래의 양국관계발전에 기여할 것은 틀림없다』고 가장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각서에는 또 9항에 「양측은 이번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충분히 발휘된상호협조의 정신이 금후 양측이 관계되는 緊急사태발생시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희망을 표명하였다」고 밝히고있는데 이것은 양국이 장래의 접촉과 협력가능성을 示唆하는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할수있다.

이대목은 앞으로 類似한 사건이 발생할경우 어떤방식으로 어떤窓口를 통해해결할것이란 구체적인 방안은 드러내놓지 않았지만우선 문제해결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정식國號사용에 버금가는 성과로 평가된다.

國號사용과 상호협조정신의 표현은 당사국인 韓·中共관계뿐만아니라 우리와 修交관계가 없는다른국가들의 對韓자세에도 유익하게작용할것이틀림없다.

中共을 리더로 생각하는 제3세계국가들 특히 아프리카의 左傾정부들은 지금까지 국제무대에서 中共의 의도를 代辯, 북한을 일방적이고맹목적으로 지지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들의歪曲·硬直된 對韓半島인식이 점차변화, 누그러질 가능성도 내다볼수있게됐다.

이번사건처리에 임하는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은 승객 승무원 機體의송환은국제법과 국제관례, 인도주의정신에따라 가장빠른시간내에 송환하며 납치범처리는 우리주권에속하는 문제이기때문에우리의재판관할권을행사한다는것이었다.

中共측도 승객승무원 기체처리에 관해서는 異見이 없었지만 납치범들은 自國의 刑事犯임을 내세워中共으로 데려가거나 次善으로 납치범에대한 교섭권을 자신들이 留保할것을 고집했으나 결국 우리측입장이그대로관철됐다.

납치범 처리문제가 이번 합의각서에서 누락된 것은 쌍방이 相異한주장을 되풀이, 합의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부분을 文書에 기록한다면 양측주장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그렇게될경우 中共측의 납치범인도에관한 권리를 유보하는 결과를낳아 국내법으로 처벌한후 刑期가끝날때 中共측에서 범인인도를 요구할수있는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측에선 이부분을 삽입함으로써 中共측에 발목을 잡히지않겠다는 속셈이었고 中共 역시 他國의主權에속하는 문제를 끝까지 왈가왈부 한다면 국제적인 무뢰한이란 비난이 나올것을 염려, 적당한선에서 후퇴한것으로 볼수있다.

이번협상은 한마디로 우리가 實利를얻으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지않도록했다는점에서 솜씨와妙味를느끼게했다.

沈圖 中共대표는 각서교환이 끝난후 인사말을통해 『사건처리과정에서 국제협약에 기초하여 원만한결말을 맺게됐다. 이같은 협조정신은 귀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사는 단순히외교적인 修辭일수도 있지만 회담결과가 불만이었다면구태여하지않고도넘어갈수있었다는점에서 그가 이번訪韓에서어느정도의好感을갖게된것이아닌가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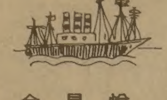
이번사건은 피납기의 승객 승무원및 中共대표단등 1백30여명의 中共人들이 본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발을들여놓게됐고 우리나라의 산업시설및 경제발전상과 사회분위기를 직접 목격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새로운인식과 이해를 하게된 계기가된것도 빼놓을수없다.

그들이 직업중에 노동자 농민등으로 표시된것도 있지만 中共의 사회체제상 서민계층이 비행기여행을 하기가 어렵다는점을 감안한다면 승객들의 대부분은 중산층이상의 지도계급에 속한다고 판단할수 있으며 이들이 귀국후 주위사람들에 한국의 모습을소개할때 인접국가에대한이해를높여주는 계기가될수도 있다.

【李在武기자】

메아리

柔遠之義



金昌悅 【編輯委員】

高宗3년 5월17일(陰) 平壤監司 朴珪壽의 급보가 서울에 닿았다. 『本月12日 亥時…洋醜者6名 漂到鐵山府宣川浦仙巖里矣』

미국 상선 서프라이즈號 선원의 漂着을 알린 제1보다. 급보에 말한「洋醜者」는 맥캐슬린 선장을 비롯한 미국인 2명과 영국인 2명, 네덜란드인2명。陽曆으로는 1866년 6월24일의 일이다.

이들은 甘草등을 싣고 중국 山東으로 갔다가 돌아가던 길에 조난, 鐵山앞 섬에 상륙했다. 이 이전에도 조난한 미국 선원이 상륙해 온적은 두어차례있었으나, 배와 선원의 國籍이 미국인줄을 알고 「交涉」이 생긴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그러나 그들이 밟은 대접은 예상밖으로 융숭했다。朴珪壽와 같은 開化의 선각자가 監司로 있었던게 그들에게는 다행이었을지 모른다.

朴珪壽의 제1보는 雜人을 금하고, 供饋(음식제공)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하며, 그들의 사정을 엄히 묻도록 지시했음을 보고 하고있다.

그 결과, 서울로보낸 제2보는, 일행중 「미씨쏨넌」은 北京에서 2만1천里 떨어진 「花旗國(뉴욕)」 사람임을 밝혔다. 맥캐슬린이 미국 뉴욕 出身임을 말한 것이다. 이때 狀啓가 人名과 地名을 한글表記한것도 우리나라 對外交涉史에서 획기적이다.

선원들의 사정이 알려짐에 따라, 정부는 그들에게 음식과 옷·담배, 부상자를 위한 약품을 제공하고, 陸路로 중국에 보냈다. 국경을 넘기전 義州에서는 3차례나 盛饌을 베풀고 선물로 부채를 주었다.

그러나 중국에 들어간 이들의 고초는 말이 아니었다. 엿새를 고생하여 奉天(지금 瀋陽)에 이르러서는, 숫제 옥에 갇혀버렸다. 우리나라에서의 처우와는 대조적이다. 굳추리다 못한 이들은 프랑스인 선교사 페레·질리神父에게로 탈출, 질리神父의 강경한 교섭으로 겨우 구출이 됐다. 미국정부는 질리神父에게 감사장을보냈고, 議會는 그에게 금시계를 선물하도록 결의했다. 그들이 朝鮮에서받은 환대에 대하여는 언급한 것이 없다.

여하간 1866년의 형세로 비추어, 서프라이즈號 선원의 환대는 희한한일로 보인다. 서프라이즈라는 배이름뜻 그대로의 「놀라움」이라해도 좋을것같다.

맥캐슬린등의 우리나라상륙은 大院君의 天主教박해로 排外熱이 드높았을무렵이다. 그들이 상륙한 다음달, 平壤에서 제너럴·셔먼號사건이 터져 서양사람들이 몰살당했다. 그 다음달에는, 天主教박해에 보복하려는 프랑스함대가 처들어 온다 (丙寅洋擾)。

이런 판국에 異樣船員을 맞은 朝野의 「놀라움」은 짐작이 되고 남는다. 그런틈에서 매캐슬린등을 환대했다는 것도 「놀라움」을 자아낸다.

서프라이즈號와 제너럴·셔먼號사건은 모두 당시로서는 해외사정에 밝았던 朴珪壽가 지휘해 처리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는 왜 그토록 相反됐을까. 두사건 소식을 거의 동시에 들었을 미국 정부로서는, 그 까닭을 이해할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쪽에서 보면 두 사건의 처리는 앞뒤가 일관된다.

무엇보다도, 재난을 당한 선원은 人道的으로 처우 한다. 당시 기록에 서프라이즈號 처리방침을「柔遠之義」라한 그대로다. 그것은「遠地사람을 화목하고 순종하게 한다」는것이다. 선원들을 환대에 그 이상의 뜻은 없다.

반면 好戰的·挑戰的인 접근은 극력 對敵한다. 이결과가 제너럴·셔먼號사건이다. 어느 경우건 상대방나름, 그基調는 鎖國이다.

예전 일을 너무 장황하게 썼다싶만, 「어린이날」 이래의 「中共바람」을 쐬며 생각난것이 서프라이즈號다. 그래서 자료를 챙겨보니, 새삼스런대목이 없지않다. 여러가지 면에서, 또 그「柔遠之義」가 닮은것도 같다。 어쨌거나, 난데없이 일어난 中國民航機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서프라이즈」를 안겼고, 그에 따른 환대와交流 또한 「서프라이즈」 감이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사정은 그근본이 판이하다. 서프라이즈號의 「柔遠之義」는 鎖國의 뜻을 담은 것이었지만, 이번것은 나라의 문호를 활짝 연 「柔遠之義」다. 환대의뜻, 환대를 베푸는 우리의 처지가 전혀 다른것이다.

다만 서프라이즈號거나, 中國民航機거나, 『論語』의 첫머리 같은 『有朋自遠方來 (벗이 있어 멀리서옴)』의 계제가 아닌것만은 분명하다. 굳이 비유하자면, 그들의 한가지처지는 『顏氏家訓』에 이른『窮鳥入懷(쫓긴새가 품에 들)』에 해당한다.

앞으로의 한국적인 환대는 이둘사이의 분간을 좀 더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보다는 이번사건 결말을 보는 안도감이 더 크다.

이제, 뜻밖의 「遠客」들은, 뜻밖의 우리나라 5월을 보고 갔다. 언젠가 그들이 「近客」되어 돌아 올 날이 있을테지만, 무슨일이건, 지나간뒤에는 배울것이 있는법이다. 이번처럼 처음 당한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일의 自初之終을 돌이켜, 『學而時習之 (배우고 제때 익힘)』하는 자세가 「近客」청할 날을 앞당길 것임을 생각한다.

記者의 目

「中共人」 어제와 오늘

北京에서 예기치 않게 서울로온 中共사람들이 10일 하오3시30분 金浦를떠났다.

대부분영화의 타이틀신에는 비행기의 이착륙장면이 등장하기일쑤다. 관객들은 着陸장면에서 만남의 希望的 암시를, 離陸때는 헤어지는 섭섭함을 느끼곤한다.

그런데 남쪽으로 사라지는 中國民航의 보잉707를보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기자는 문득 지난70년 4월3일 하오6시3분 金浦공항에서 80시간의 인질대치극을 벌이다 赤軍派를 태우고 平壤을 향해 이륙했던 JAL의 소속 요도(淀)호의 離陸장면을 생각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勝員에서진듯 敗北感을 맛보기도했고 「철부지共産主義傾倒 日本청년들」의 狂信에 人間的 연민마저 느꼈었다.

오늘의 中國民航機의 이륙은우리에 무얼던져주는가.

北京을 「竹의帳幕」이라고 이제는 잘부르지않는다。이는 中共이 美·日과 70년대들어 門戶를개방, 美蘇의 冷戰 兩極체제를 多角化시킨이후 實用을 향해가고있는 準開放社會로 보기때문이다.

그래서인지 「沈阳」人들의 金浦출발은 요도號의 때와는 사뭇 느낌이 달랐다. 50년12월 그들은 다 이긴 유엔군을 현재의 休戰線에 머물게한張本人들이다. 그때 국민학교생이었던 기자는『무찌르자 오랑캐 몇백만이냐』를 불러댔었다. 그때 그들은 오랑캐였다.

53년7월27일 板門店 휴전조인에 中共측은 전쟁당사자로 서명했다.당시 彭德懷가 사용한 호칭은 「中國人民支援軍司令」이었다。그런데 이번 沈圖 中國共産黨 中央委員이 서명한 覺書의 호칭은 「中華人民共和國中國民用航空總局 總局長」이었다。

오랑캐와 「中華人民共和國」의 差異는 그렇게 큰것임에 틀림없다.

30년전의 적개심이 어느새 퇴색해버린것은 세월탓도 中共측의 자세변화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보다 『기자선생들께감사한다』고 말한 沈圖의 意圖를 읽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開放社會는 自由民主主義사회며 이사회는 市民의 알권리가 보장된사회다. 開放을 향해가는 中共의 고위관리가 이사회의 尖兵인 기자들의役割을 알았다면 中共의장래는 어둡지만은 않을것이다.

우리는 짧은 시간동안 不時의 中共손님들에게 인간을 존중하는 開放社會의 善意를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그들을 마음가볍게 보낼수있었다.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키워야할것이 무었이겠는가。北京人 沈阳人들은 우리들에게도주고간게 그래서 많다.

【朴浦培정치부장대리】

공 고

재캐나다 대구공고 동문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동문제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1983년 5 월27일(금)
저녁 8 : 00
장 소 : 44 Deepdale Dr.
Scarborough
연락처 : 이동환 751－5851
(757－6711)
MR. 허 298－4099
MR. 김정수 638－5530
MR. 정용태 762－3247
MR. 박시화 431－3038

대구공고동창회

CASH & CARRY

DOMINION SMALL WARES

불꽃놀이(FIRE WORK)

SPECIAL 40% OFF

VICTORIA DAY(5월23일 월요일)를 대비하여 가장 다양한 FIRE WORK을 대량입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단, CASH & CARRY인 경우 5% 더 감해 드립니다.)
편리를 도모코저 토요일·일요일 그리고 VICTORIA DAY에도 영업합니다.

5월15일(일) 8AM～2PM
5월21일(토) 8AM～1PM
5월22일(일) 8AM～2PM
5월23일 (VICTORIA DAY) 8AM～3PM

47 Orfus Rd.
(도매상 Loeb 근처)
789-7214
매니저 김 근 래

삼가알립니다

지난 5월10일 화요일 10시 경기도 김포군 고천면 태리 35번지 자택에서 김남용군 군의 음침 강능 김공 기창 옹께서 노한으로로 별세하셨기에 부엄을 삼가알립니다.

장례일시 • 1983년 5월14일(토요일) 오전10시

장지 · 경기도 김포군 고천면 선영

유가족
장녀 남옥 사위 이정택
장남 남웅
차남 남혁
차녀 남정 사위 김경용
삼남 남헌
사남 남집
5남 남우
3녀 필순 사위 경남현

호상 김기욱

친우대표일동

날아왔다 날아간「中共해프닝」

「關心」마무리로 金浦空港도 이젠 홀가분

◇被拉때의 不安 씻어버리고 귀향비행기를 타기에앞서 한 늙수그레한 中共승객이 그동안통역과 관광안내를 맡았던 여대생의 손을잡고 아쉬운듯 작별의 악수를 나누고있다。그의 웃음속엔 비상착륙당시의 불안과 초조한 표정이 남아있지않았다。

며칠동안 나라를 들썩거리게했던 中山服 퍼레이드가 끝났다. 뜻하지 않았던 「납치」로 새파랗게 질렸던 中共승객과 승무원들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유복한 관광객이된 기분으로 어제 제나라로 돌아갔다. 「따뜻한 대접」이었는지 「지나친환대」였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모두가 너무 흥분했던 6일이 아니었을까.

中共 사람들은 「쎄쎄」(고맙다)를 연발하고 갔지만 속마음으로도 정말고마움을 느끼고 갔을까. 런던이나 파리、東京、워싱턴 같은데서 보아온 감상적인 「中共환대」가 서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말할수 있을까.

그래도 中共人을 태운교섭기가 10일하오 金浦공항을 이륙하는것을 지켜본많은 사람들은 이번의「만남」이 좋은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友好的 상호협조정신 先例 확인"

沈圖회견

이날 沈圖단장등 대표단은 하오2시25분 金浦공항에 도착、10여분간 휴식을 취한뒤 국내외보도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沈단장은 『여기온후 모든승객과 승무원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있고 부상당한 승무원들도 훌륭하게 치료를 받고있는것을 보고 매우 기뻤다』며 『피납기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곧 나와함께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서울을 떠나는 이순간 귀측에 다시한번 사의를표한다』고 말했다.

沈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이번사건에 상호협조 정신을발휘했는데 앞으로도 항공기납치외에 긴급한 사태가일어났을때에도 적극적인협조를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두나라국민들사이에 뜻밖의 수난이 일어나 부득이할때 이같은정신에입각、처리된다』고 답변했다.

沈단장은 『회의과정에서 마지막에 진통을 겪었는데 그대목은무엇이냐』라는질문에 『이문제협상에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고 우호적으로 처리됐다』고 전제한뒤 『다만 일부기술적인문제에대해 쌍방의 이해가달라 시간이 다소걸렸으나 전체적으로볼때 순조롭게진행돼온것으로안다』고 밝혔다.

약30분간에걸친 기자회견을 마친 沈대표단장은 다른귀빈실에있던 일행과 합류、출국램프로 내려가 공항VIP용버스를 타고 대기중인 특별기로 향했다.

대표단은 孔魯明외무부차관보등 국내인사 5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트랩에 올랐다。이때 우리측대표단이 손을흔들며 환송하자 沈단장은 특별기출입구에서서 손을흔들며 답례했다。

특별기는 예정보다 15분쯤늦은 이날하오 3시45분께 화창한 金浦상공으로떠올라 남쪽으로 기수를 돌렸다。

機內食준비 부탁

출발에 앞서 중국민항특별기승무원13명이 이날하오 1시10분께 金浦에 도착、출국수속을 끝내고 기장등 3명은 운항실로가 플라이트플랜(비행계획서)을제출하고 10여분간 KAL운항직원에게 브리핑을했다。

기장은 KAL측에『기름은 필요없고 기내식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오2시정각 피납기 승무원8명과 승객85명이 버스편으로 공항에 도착、보안검색을 받은후 2시20분 모두 비행기에 올랐다。

아쉬운 작별인사

승객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가져온 검정색가방과코오롱스포츠백등 2개를 들고있었는데 가방마다 선물등 물건이 가득들어있었으며 개중에는 롯데쇼핑백과 新世界쇼핑백등 종이가방과「Republic of Korea」라고 쓰인 흰색비닐백을든 승객도 있었다。

승객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3층 출국장입구에서그동안 안내를해준 여대생들과 아쉬운듯 작별인사를나눴다。

유일한 어린이승객 馬彬군(3)은 축구공을 든채 어머니품에안겨 출국장으로 나갔는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부상을 입고 치료중이던 항법사 王培富씨(25)는 앰뷸런스를 타고 승객들보다 먼저 일반출국상을 거치지않고 램프로 바로들어가 비행기에 탑승했다。

王씨는 승무원들의 부축을받으며 트랩을 오르는순간 눈물을 글썽이며 환송나온 병원장에게 손수건과 손톱깎기를 선물로주며『고맙다』고 몇번이고 고개숙여 인사했다。

한편 이날 공항에는 내외국인들이 출국하는 중공인들을 보기위해 2、3층 대합실에 몰려들었으며 승객들이 출국장으로 들어간뒤부터는 대합실의 TV앞에 자리잡고 승객들의 움직임을 관심있게 바라보았다。

외국인중에는 열심히 중공승객들을 카메라에 담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 沈圖국장등 교섭단대표일행8명은 하오2시25분께 孔차관보와 沈圖국장이 서울1가2726호 로열검정색승용차에、나머지 대표7명은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귀빈주차장에 도착、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KAL 조업서비스 支店경유지불 약속

대한항공은 중공대표단과 승객들을 위한 기내식과 선물등을 준비、특별기에 실었다。

대한항공측이 마련한 기내식은 1인당 평균 27달러(한화2만원)에 상당하는 1백30명분이며 이가운데 대표단 10명분은 VIP등급、승객과 승무원은 단거리1등 기내식이다。

중공대표단은 KAL측의 지상조업서비스료 3천달러를 중국민항 홍콩지점이나 東京지점으로 청구하면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東京경유 北京통화 沈圖총국장、7분간

沈圖중공대표단장은 9일하오 신라호텔에서 東京경유로 北京과 국제전화를했다。

沈단장의 전화는 9일하오3시30분 서울 국제전화국에 신청되어 KDD(東京국제전화국)를 거쳐 15분뒤인 3시45분 北京과 접속되었으며 中共民航의 국제국장 李樹蕃과 7분동안 통화한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非常離陸 시도

被拉機 성공하면 金浦들러 내일出國

【春川=姜秉泰기자】中部전선○○기지에 불시착한 중공민항여객기는 10일 기체를 가볍게 하기위한 감량작업과 기체최종점검을 모두 끝내고 빠르면11일상오7시께 비상이륙을 시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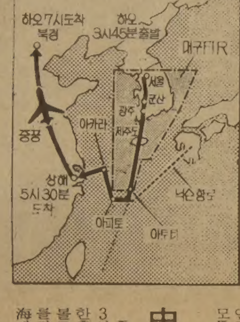
피납기는 일단 이륙에 성공하면 金浦공항에기착, 재급유를 받은뒤 중공으로 돌아갈예정인데 객석의자등 부대시설물들을 다시붙이는데 상당한시간이 걸릴것으로보여 12일 상오에나 떠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11일의 비상이륙에는 피납기의 교체승무원으로온 6명과 지상기술진 4명등 10명이 모두 타지않고 白景休기장등 중공승무원 3~4명과 대한항공의 高永一기장등 최소한의 인원만이 탈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일하오에는 활주로대기장에있던 기체를 주활주로로 끌어내 기체에전원을 연결, 3개의 엔진을 시험가동하고 유압계통의 브레이크및 각종계기의 정상작동여부를 차례로 점검해 이륙을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한편 양측 기술진과 군관계자및 春川市관계자들은 이날상오 비상이륙에 대비한 관계관회의를 열고 대비책을 협의했다.

春川市는 중공여객기의 비상이륙때 일어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기지주변의 일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주변교통을 차단키로했다.



中共機、어제下午 7시 北京着

중공특별기는 10일 하오 3시45분 金浦공항을 이륙한후 濟州상공~아토티~볼로드(Bolod)~아피토~를거쳐 하오5시30분에 上海에 도착한다.

피납기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거의모두 上海에서 내리고 대표단들은 이비행기로 곧장 北京으로가는데 하오7시(우리나라시간)께 도착예정이다.

"한국에感謝" 和기장등書信남겨

피납여객기의 부기장 和長林씨(34)와 馬錫紅씨(30)등 피납중국인 6명은 10일 서울을떠나기에 앞서 쉐라톤 워커힐호텔 명월관에서 점심을 먹으며 『한국민의 후대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다.

▲施素淸씨=당신의 국민들은 우호적입니다. 한국의 산하는 아름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和長林=귀국의 국민들은 아주 열정적입니다. 산하는 수려하고 자연은 아름다우며 당신들이 열정적으로 대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당신들도 우리나라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證據수집마쳐

서울地檢、拉致犯 곧審問

중공여객기 피납사건을 수사하고있는 서울지검공안부는 9일하오 서울시내 모처에서 피납기 기장王以軒씨(43)、부기장和長林씨(33)등 2명과 부상을 입은 항법사 王培富씨(25) 통신원 王水昌씨(22)등、승무원4명으로부터 두번째 피해자진술조서를 받았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10일 『8일과 9일 두차례에걸쳐 승무원들로부터 피납사항과 경위등을 진술받아 이들에대한 증거수집을 모두 끝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명간 납치범들을 정식입건 수사하게될경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그들의 신변을 검찰로 데려오지않고 외부에서 신문하게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구속또는 불구속여부도 정부차원에서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34 BLOOR ST W B536-1692 H245-3539

人蔘드링크서 유리조각

동일인삼製品 마시려다 목에 걸릴뻔

【瑞山】동일산업주식회사(공장·경기도포천군신북면기지리 965의3)의 드링크제인 동일인삼D(자양강장제)에서 길이 1㎝정도의 유리조각이나와 이를모르고 사서마시던 사람이 목에걸릴뻔한사고가 일어났다.

지난7일상오11시께 충남서산군서산읍 서산군청직원 한연동씨(42)는 사무실에서 손님을 대접하기위해 구내매점에서 동일인삼D(용량1백30㎖)4병을 1병에 4백원씩주고사마셨는데 이중한씨가 마신병에서 유리조각이나와 목에 걸릴뻔 했다는것.

한씨에 따르면 이날 손님 2명과 김모계장등 4명이 앉아 동일인삼D의병마개를 따서 두모금째 마시는데 목에 이상한것이걸려 급히 뱉아보니유리조각이나왔다는것이다.【龍】

敎鍊교사令狀신청 풍선爆發사고

서울 中部경찰서는 10일 東豆川여상 교련교사 任永彬씨(29)를 중과실 치상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林씨는 지난 8일 하오2시30분께 서울운동장 축구장에서 한국축구 슈퍼리그 개막식행사에 수소가 들어있는 풍선10개씩을 들고 東豆川여상 학생 1백명을 인솔, 대기하고 있는 자리에서 라이터 불을 켜는 바람에 불똥이 풍선에 튀어 풍선 1천여개가 연쇄폭발, 여고생 70명과 인솔교사 경찰관등 모두 74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다.●

首都圈방어위한 「멸공83」훈련

내일까지 實施

북괴무장 폭도의 수도권침투에 대비한 「멸공83」훈련이 이틀째로 접어든10일, 모의 북괴군은 모두 2백 6개 지역에서 살인·방화·파괴 활동을 하며 서울침투를 노렸으나 군·경·예비군·민방위대및 미군의 통합작전으로 분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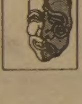
이날밤10시에는 제3국을 통해 구입한 아군복장을 착용한 1개 대대규모의 가상적군이 K61수륙양용차를 이용, 임진강하류를 강습도하하려했으나 아군의 반격으로 격퇴됐다.

이훈련은 12일까지 서울·경기·강원 일부지방에서 속개될예정.

中共 킬러

世界탁구 銀메달 딴 梁英子선수

"北京에 들어가 그 높은壁 깨고싶다"



中山服차림의 中共사람들이 때아니게 서울에 와 숨가쁘게 외교전을 펼치고있던 8일 東京【요요기실내체육관에서는 또다른 對中共전이 불을 뿜고 있었다.

한국여자탁구의 에이스 梁英子선수(18·사진)와 中共의 퉁링(童玲·21)선수가 맞붙은 제37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부준준결승은 요요기체육관은 물론 세계탁구팬들의 시선이 온통 쏠렸던 한판 승부.

세계 챔피언과 랭킹18위의 게임은 처음부터 큰기대를 모으지는 못했다. 그러나 둥근 탁구공은 예상대로만 튀지 않았다. 포핸드와 백 핸드 드라이브가 종횡무진 파괴력을 발휘하면서 높고 험하던 中共관문은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3대0으로 梁의 스트레이트승.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뒤이어 벌어진 준결승에서 中共은 세계4위 齊俊群(21)으로 만리장성을 쌓았다. 처음 두세트를 빼앗기고 12―18로 몰린 梁의 3세트는 절망적이었다. 타도 中共의 꿈이 무산되는가 싶었을때 어디서나온 괴력인지 梁은 잇단 역전극으로 승리를 또 빼앗았다.

최후 저지선을 뚫고 北京함락의 마지막 고지에 梁이 올라서지 현지 매스컴은 『中共킬러가 등장했다』고 흥분했다. 우승은 놓쳤지만 결승토너먼트 7차전에서 4번을 연속 中共과 싸워 3번을 연승한 梁은 中共장벽을 후련하게 부신 자유세계 최대의 돌풍임에 틀림없었다.

『백66㎝의 날씬한키、탄력있는 몸매、수줍어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은 첫눈에 그를 공격형 선수로 보이게한다. 그러나 정작 비밀병기는 힘이 아니라 사내같은 뱃심과 느긋한 침착성이라는게 주위의 평이다.

혼쭐이난 中共감독李富榮은 곧 정상에 오를 재목이라고 감탄했지만 梁은 수비의 헛점등 역부족을 감추려하지않았다.

『北京에 들어가 진짜 中共벽을 깰수있었으면합니다』 핑퐁을 앞세우고 세계의 창을 두들긴 그 中共에 들어가 그녀는 中共킬러임을 다시한번 과시할수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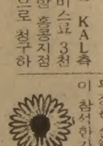
【東京=李廷元특파원】

校內시위 檀大生 2명에 有罪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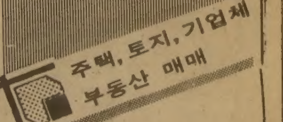
서울형사지법은 10일 교내시위를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檀國大생 金용덕피고인(23·경제과4)에 징역2년을、李응복피고인(22·국문과4)에게는 징역1년6월을 각각선고했다.

이들은 지난3월31일 하오1시께 공대507호 강의실앞에서 반정부 유인물 5백여장을 뿌리고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지난4월2일 구속기소 됐었다.

矯正기관장 會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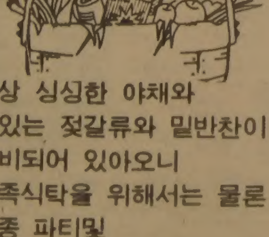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가 10일상오10시 서울 永登浦교도소 회의실서 裵命仁법무장관 金錫輝 검찰총장등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큐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CHINA HOUSE / Bathurst / Bayview / Bloor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던다스×유니버스티)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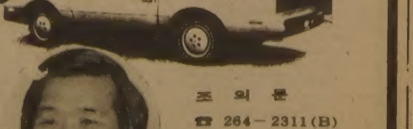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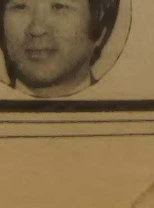
비데오게임 머신
⊙24시간 써비스
⊙분배율 50%(기계에서 오는 이익)
⊙정기적으로 기계를 첵크·업하고 교환해 줌.
TRANS AMERICAN
☎: 636-0906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배성
권순근과 ADD-K 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해태 先頭서 질주

홈런 2發로 MBC 제쳐 3-2

프로야구

홈런타선의 해태 간판타자 4번 金奉淵이 선제 2점홈런, 5번 金城漢이 결승솔로 홈런으로 연속 홈런아치를 그리며 해태타이거즈가 10일 잠실홈구장의 MBC를 3-2로 제압, 11승1무 6패로 단독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해태는 1회초 2死후에 터진 연속홈런으로 리드를 잡고 사이드 드로 朱東植과 강속구투수 李相潤의 계투로 MBC 추격을 뿌리쳐 금년시즌 MBC와의 대전서 5승1패를 기록했다.

이던 朱東植은 이날 선발구원투수로 큰활약을 보로나와 MBC타선을 8·3회동안 4안타 3四死球 탈삼진 1개로 선방, 3-2의 리드를고수, 3승1패 2세이브를 마크했다.

선발투수로 큰활약을 보였던 정통파 李相潤은 9회말 1死2·3루의 고비에서 구원등판, 커브와 쾌속구로 MBC의 5번柳承安과 6번金貞洙를 연달아 삼진으로잡아 해태의 승리를 굳혀주었으며 4승3패 1세이브를기록, 구원투수로서의 또다른 기량을 선보였다.

3-2로 리드한 해태는 9회초 無死만루의 찬스를 7번 梁承虎의 병살타로 놓치며 朱東植이 난조에 빠져 9회말 1死2·3루의 위기를 맞았다.

이날 金奉淵은 3게임연속홈런을 날려 시즌통산7개로 선두 金用熙(8개)를 1개차로 접근했다.

張吉山 <1737>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97)

오계손이가 말림에게 송화 나가서 그의 계원 아부개를 찾아가 그에게 부탁하여 세마를 내고 마교(馬轎)를 준비하도록 일러주었다. 계손은 그들을 따라서 구월까지 나오며 시종 원향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가면 일이 성사되어 한양에서나 너를 만나볼지…아니면 구천에서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나 이것은 속연이 아니라 전생의 연이니, 여환 스님은 곧 미륵신이자 흉령이니라. 잘 도와드려라』

『그분 곁에 있으면 칼 산지옥을 헤매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생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가 내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더냐. 잘가거라…』

『곧 찾아뵙게 될지도 몰라요. 아저씨 한양서 못뵈면… 가는 길에 소메에 들르지요』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란다』

오계손이도 눈 앞이 흐려져서 얼른 외면하였다. 조산을 어구에 닿도록하여 계손은 문화 방면으로 가야 하므로 거기서 여환 일행과 작별하게 되었다.

『용녀부인 잘 보살펴 드리구, 승운이 한테두 안부 전해 주고』

오계손이 계화에게 인사하니 계화도 못내 섭섭하여 중얼거렸다.

『미적미적 하지말구 얼른 장가두 들구 해야지. 우리 신오라비는 언제까지 처량한 홀아비신세로 지내려구』

환회 전성달이와 일행이 인사한뒤에 계손은 여환에게 답하였다.

『칠월이면 이제 한달 포 남았소. 거사 준비가 끝나면 날짜를 알려 주시오』

『칠석 어름이 될것입니다』

하고나서 여환은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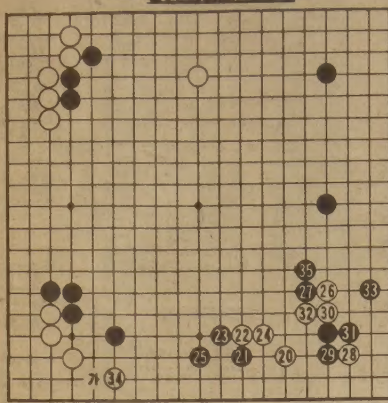
『일단 날짜가 정해지면 우리 미륵 향도들은 비록 외올이 없어 어육이 되더라도 거사를 할것입니다』

오계손은 들판 머리에서 있었고 그들은 논두렁길을 따라서 걸었다. 여환이 한참 걷다가 뒤돌아 보니 아득한 들판 저 멀리서 오계손은 그냥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계손의 준비대로 송화에서 마교를세내어 말 릿이가 끌고 원향이를 태웠다. 말 위에 가마를 얹었으니 타고 보면 편안하였으나, 처음에 오를제엔 아슬아슬하여 원향이는 몇번이나 사양하다가 올라앉았다. 원향이가 볼일이 있을 때엔 계화만 앞에 돋보도록 가마의 발을 들치고 좀 쉬자고 하였고, 계화가 마교를 세우고 달라는 깍지낀 팔 위에 원향을 들어내리고는 하였다.

그들은 해주 연안 송도를 거쳐서 사흘만에 중화 때 쯤하여 파주 문산포 이 경순네 여각에 닿도하였다. 전생이와 장쇠가 그들 일행을 먼발치에서부터 보고 달려 나왔다. 묘옥은여문이와 마루에서 놀다가 반가와 하면서 그들을 맞았다. 묘옥은 첫눈에 원향이 가 새댁인것을알아보았다.

第14기 名人战 挑战者決定리그



第16局 第3譜 20~35 (각5시간·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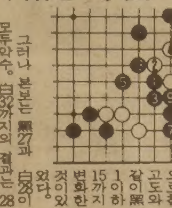
白(7段) 徐奉洙<3勝1敗>
黑(4段) 李相勳<1勝3敗>

徐 7단의 실리바둑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李4단은 굳이 우변에 3連星 포석을 시도한 모양인데 물론 상대의 능기를 역으로 대항한 심산일게다.

白도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좌상과 좌하에 알뜰한 집장만하고 白20에 걸쳐 파차 바는대로 실리와 세력의 대결이 되었다. 黑21협공에 대한 白22, 24 다음 26은 가끔 보게되는 형. 있을수 있는 임기응변의 취향이다.

이때 黑27. 어디서 비슷한것을 본적이있다 했더니, 日本第2期 名人·棋聖戰(趙8단연용)에 실린 林海峰9단과 大竹英雄9단의 국에 나타났던 것으로 참고도와 같이 黑1이하 15까지 변화한 것이 있었다.

있을수있는 手法



그러나 본보는 黑27과 白28이 모두악수. 白32까지의 결과는 이 더 악수인 뜻이있다고 한다. 黑도 33은 급하지 않았다. 손을 빼고 黑「가」를 선수한 후 黑33과 白34의 교환은 黑이 손해인 때문이다. 하기야 33은 다음 35를 노린것인데 과연어떨는지. 이수의 전부는 다음보에서 알아본다. 【一凡】

「단체」失望…「개인」에 위안

東京 세계탁구大會를 돌아보면…

頂上정복에 瑞光비쳐

中共터득한 「梁英子」 많이 길러야

제37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개인단식에서 준우승를차지한 梁英子선수(左)가 오기무라대회장으로부터 은메달을 받은뒤 악수를 나누고있다. 오른쪽은 우승자인 中共의 曹燕華. 【東京AP㊐=聯】

세계제패 10돌, 사라예보에서 이룬 영광을 되찾으려던 한국탁구대표팀은 東京 제37회 세계선수권대회서 큰실망과함께 큰희망을 안고 귀국하게 되었다.

한국은 73년 사라예보대회이후 처음 여자단체전예선에서 탈락하는 비운을당했으며 대회참가사상 처음 개인전 결승에오르는 기쁨을 맛보았다.

梁英子·尹璟美·安海淑으로 편성된 신진 여자대표팀은 세계의강호들을 놀래줄만한 기술을 갖추지못했다. 정보도 캄캄했고 대비도 허술했다. 출전순서의 불리도 겹쳤다. 한국은 가장 손쉽게 이길수있다고 장담했던 日本에 뜻밖에도 3-1로 완패했다. 최강 中共에 도전해보기도 전에 한국은 10년간지켜온 정상권에서 탈락, 5위로 떨어졌다.

탁구는본래 개인경기다. 한국의 단체전에대한 집착은 개인전승부가 더욱어려웠기때문이다. 수십개국에서 저마다 독특한 기술을 갈고 닦은 수백명의 출전자들 가운데서 세계챔피언의 자리를 노리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단체전에서 좌절감을 맛보았던 한국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여자개인단식에서 세계2위를 차지, 큰 위안을 받게되었다. 단체전주전으로서 부담감을 이기지못했던 梁英子는 고삐풀린말처럼 中共의 높고 두꺼운 장벽을 뛰어넘으며 사상처음 여자단식결승에 오른것이다.

지난 대회서 우승, 세계랭킹 1위로 1번시드를받은 童玲이 梁英子의 드라이브 강타에 3-0으로떨어졌다. 세계8위 黃俊群도 2-0으로 리드하다가 3-2로 역전패당했다. 梁英子가 中共강호 耿麗娟·童玲·黃俊群에게 거둔 3연승은 한국여자탁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쾌거였다. 겁을 모르고 싸우는 梁英子의 의연한 모습에 의기소침했던 한국의코칭·스태프는 새로운힘을 얻게되었다. 中共 콤플렉스를 깨는 방법을 梁英子는 실전에서 처음 터득해낸것이다.

그러나 中共과 한국의탁구저력에는 아직도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 단 한명의 李에리사, 단한명의 梁英子를 가졌을 뿐이지만 中共은 張立·童玲·曹燕華를 갖고 있다.

『꼭 우승하고 싶었지만 曹燕華의 기술은 나보다우위가 틀림없어요』

한국탁구가 中共에 이길수 있는 길은 中共을 터득한 梁英子를 많이 길러내는것이다. 【方錫鉉기자】

땅끝에서 오다 <53>

金成一 作
宋龍 畵

길 잃은 새 ①

준호는 하얀 벽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경찰서의 취조실과 병원의 병실은 과연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마법상자임에 틀림없었다. 그 하얀 벽들은 한없이 물러나가 사람을 허공중에 던져놓기도 하고, 또 한없이 죄어들어 사람을 옭아 매듯 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침묵의 전율이었고, 백색의 공포였던 것이다.

그 백색 공간의 한 모퉁이가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낯선 그림자가 하나 쑥 들어서고 있었다.

『…………?』

준호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한 여자가 벽 속에 들어와있었다. 그것은 한여자였다. 그것은 한 여자였을 뿐, 그렇게도 준호가 잊으려고 애써온 문 영실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 깊이 꽂힌 비수가 되었던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다.

처녀때와는 달리 그녀는 꽤 살이 쪄있어서 흡사 좀 부은듯한 모습을 하고있었다. 눈썹아래로는 짙은 아이섀도가 발라져있었고, 입술은 새빨간 루즈의 빛깔로 번쩍거리고 있었다.

준호의 상상속에 있던 문영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어서 그는 아직 입도 열지못하고 있었다. 마치 갈비집의 계꾼이나 카바레의 비계덩어리, 아니면 은퇴한 술집 접대부를 연상케하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문영실이었던가…?)

그녀는 건들거리는 걸음으로 준호의 코앞까지 다가서고 있었다. 역겨운 화장품냄새가 코를 찌르고있었다. 그녀는 준호의눈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결국은 이렇게 만나는군요』

자조(自嘲)적인 냉소가 그녀의 입가에 흐르고있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취조실의 딱딱한 의자에 걸터앉아 다리를 꼬았다.

『오래간만에 만나 부탁부터 하는것은 좀 안됐지만, 제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

『담배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준호는 주머니를 더듬어서 담배갑을 꺼냈다. 「루나」담배였다. 일본에 있으면서도 그가 고집스럽게 피워온 「루나」담배였다. 문영실의 문을 꿈장 달의 이미지로 설정하여 그녀를 달의 여신으로 유추하였고 그래서 루나 담배를 피울때마다 그 연기속에서 날렵한 영실의 부활을 그려왔던 준호였다. 그는 루나 담배를 그녀의 코앞에 내밀었다. 문영실은 명문여대의 불문과를나온 재원이었으므로 그「루나」의 뜻이 무엇인지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모습은 딴판이더라도 네마음만은 그대로 있을것이다. 내가 왜 「루나」담배를 피우고있는지, 너는 그것을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그는 뚫어질듯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표정의 변화를 읽으려고했다.

그러나 문영실은 담배의 이름에는 관심도 없이 담배를 뽑아 물고는 뒤따라 들어온 형사에게 말했다.

『아저씨, 성냥있어요?』

KANATA

컴퓨터·싸이언스코스 학생모집

저희 Kanata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ing & systems analysis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은 Cobol, Rpgii, Basic, Data Base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율을 알아보십시요.

1983년 수업시작일은 6월27일, 8월22일, 9월19일, 10월11일.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함.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 Mary Street, at Yonge, Fifth Floor,
Toronto, Ontario M4Y 1P9

감사 말씀

지난 5월7일(토) 돌아가신 저희 선친 성낙준(영세명 레오)옹의 상을 당하여 선후배 제현및 모든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베풀어 주신 협조와 위로에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지면을 통해 감사를 대신합니다.

1983년 5월

아 들 성원경
며느리 성안나
손 자 기영
손 자 기준
친지대표 김지일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국일보광고부

동래 고보 중고교

신춘을 맞아 동래중고교 동문회 발족및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6월 하순)이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김성래 439-6717
김문고 889-8290
최우현 243-0267

망월회 재캐나다지구동래중고동문회

중동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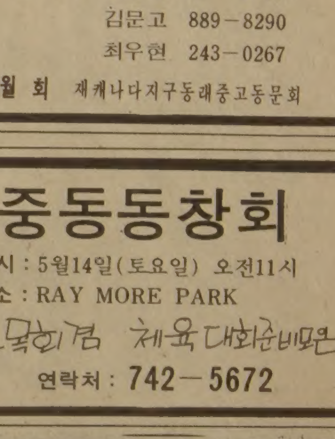
일시 : 5월14일(토요일) 오전11시
장소 : RAY MORE PARK
친목회겸 체육대회준비모임
연락처 : 742-5672

낚시대회 공고

제3회 한인친선 낚시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낚시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3년 5월23일(월) 빅토리아·데이 오전 9시~오후 5시(우천불구)
◈장 소 : Bellwood Conservation Park
◈참가비 : 어른-10불, 어린이(13세미만)-5불
◈준비물 : 낚시도구및 점심 ※미끼는 각자 준비할것.
◈연락처 : Mr. 리(499-3299), Mr. 고(690-1496) Mr. 김(293-0117)

◈시상및 상품 :
특등…낚시협회 회장트로피및 상금 3백불
1등…한인회장 트로피및 부상
2등…총영사 트로피및 부상
3등…실업인협회장 트로피및 부상
※노익장상, 부녀상, 아동상, 감투상, 가족상, 잉어상 등 각각 트로피.
⊙기타 행운권 추첨, 기념품 증정 등이 있음.



◈협찬단체및 업체 : 토론토 한인회, 토론토 총영사관, 금성사, KAL, 한국식품, 에코시스가구점, 토론토 한국일보, 한인실업인협회, 민중신문사, 김국일트로피, 코리안 저널사, 거구장

〈가는길〉
토론토에서 HWY 401을 타고 West로 가다가 "인터체인지 36A"로 빠져나가 HWY 6 North를 따라 Guelph를 지나서 북쪽으로 더가면 Fergus라는 작은 마을이 있음. 이곳에서 3마일 북쪽에 위치함.

주최 : 한인낚시협회 대회장·이장관

승객·乘務員·機體 早期송환 합의

拉致犯 國內재판 회부

中共「署名자격」싸고 合意文書지연

被拉機 修理되는대로

負傷승무원1명 별도송환

한국과 中共은 中共여객기 被拉 불시착사건처리 문제를 위해 사흘간에 걸친 직접협상끝에 승객·승무원 및 機體의 早期송환, 납치범에 대한 한국측의 裁判管轄權 행사등 중요문제에 합의, 9일 하오 까지 合意文書 작성작업을 벌였는데 양국은 곧 合意文書를 교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中共여객기의 中共人 승객및 승무원1백2명 가운데 重傷者1명을 제외한 95명은 합의문서가 교환되는 대로 곧 본국으로 송환될것으로 보인다.

2명의 부상승무원중 重傷인 1명은 거동이 자유로와질때까지 국내에서 치료받은뒤 별도 송환되며 機體는 정비와수리가 끝나는 대로 송환될예정이다.

양국대표단은 8일상하오에 걸친 두차례의 전체회담을통해 승객 송환등중요 문제에관한 원칙적인합의에는 이르렀으나 합의문서작성과정에서 양국대표단의 자격 표현 문제와 납치범처리에관한 기록, 승객明細書작성문제등을싸고 異見을보여 합의문서 교환이 늦어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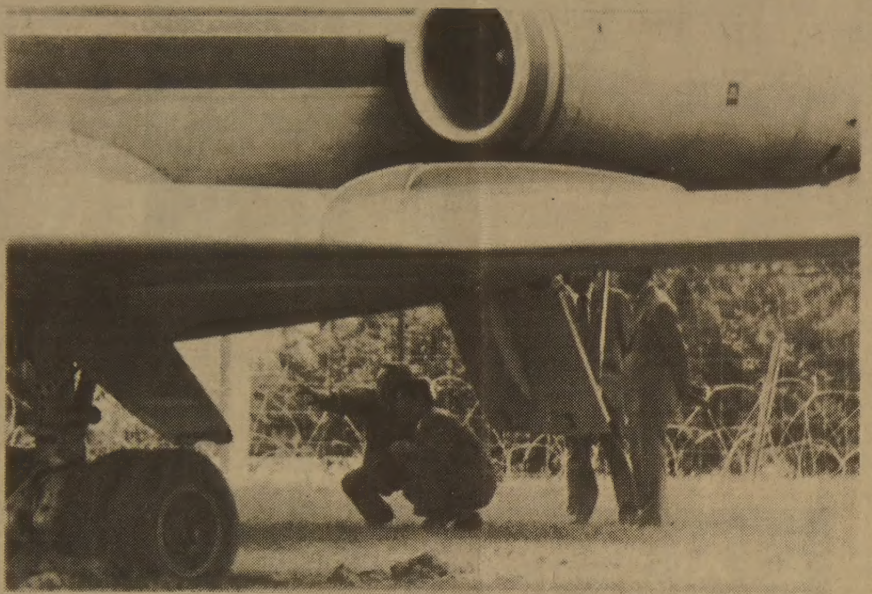
합의문서작성을 위해 양측의 실무대표는 8일하오과 9일새벽에 이어 이날 하오2시20분에는 孔魯明 한국측 수석대표와 센투(沈圖)中共측 수석대표 까지 참석한 가운데 1시간동안 협의를 계속했고 이어 4시50분 다시협의를 했으나 하오7시현재 의견을 접근치못했다.

합의문서 작성과정에서 한국측은 中共측 대표단의 訪韓은 中共國籍을가진 여객기와 승객을 인도받기위한것인만큼 합의문서에 中華人民共和國을 대표하여 沈圖국장이 서명한다」로 할것을 내세운데반해 中共측은「中華人民共和國民航總局長沈圖」로 서명할것을 주장, 異見을 보이고있다.

납치범의 처리문제에 관해서는 中共측이 납치범은 中共의 刑事犯이라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것을 주장, 異見을 보이고 있으며 또 中共측은 탑승객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명단만을 제시할것을 주장한데 반해 한국측은 다른승객과 균형을 맞추어 신상확인을 해줄것을 요구, 논란을 벌인것으로 알려졌다.

양국대표단은 이에앞서 8일 상하오 두차례 회담을 갖고 ▲승객·승무원 및 機體의 早期송환 ▲납치범6명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과 국제관례에따라 한국측이 재판관할권행사 ▲한 부상자는 별도송환 ▲수석대표간의 합의문서교환을 위한 文書작성실무대표 1명씩의 지명등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국측에서는 金炳連외무부亞洲국장이, 中共측에서는 盧瑞齡民航총국國際司副司長이 문서작성실무대표로 나섰다.



◇被拉 中共機 마지막 손질 中共으로 다시 떠날 채비에 바쁜 피납여객기。우리KAL측기술진과 中共에서온 기술자들이 비상 이륙가능성을 따지기위해 엔진과 랜딩기어등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있다。

拉致犯 6명중에 高官자녀 있는듯

美紙보도

【워싱턴=李文熙특파원】 중공의 中國民航機를 납치한 6명의 납치범들가운데는 중공고위관리의 자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뉴욕·타임즈紙가 8일北京發로 추측보도했다.

뉴욕·타임즈紙는 중공이 이례적으로 한국에 협상대표단을 신속하게 직접파견한 여러가지 배경을 풀이하면서 『납치범들중에는중공고위관리들의 자제가 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있다. 중공에서 일반인들은 소속직장의 승인이 없는한 국내여행에 필요한 항공표를 구입할수없다』고지적했다.

拉致犯억류 적절

自由中國 외교부

【臺北AP·UPI=聯合】臺灣정부는 9일 한국이 재판권행사를 위해 6명의 중공민항기 납치범들을 한국에 억류키로 정한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대만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만은 국제법국제관례 또 국내법에 따라 6명의 중국인 납치범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대한민국정부의 입장을 충분히이해한다고 전제한후 한국의 그같은 결정은 적절한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이들 납치범이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인도적견지에서 그들의 희망대로 자유를 얻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犯人 毛조카一派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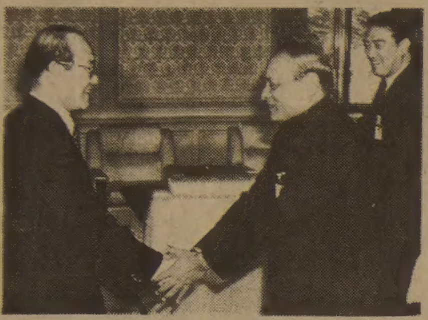
홍콩紙 최근 숙청당한 毛遠新동조자"

【홍콩=聯合】중공민용항공총국(CAAC)소속 여객기의 납치범들은 최근까지만해도 遼寧省 瀋陽의 실력자로 군림해오다 숙청당한 毛遠新의 정치동조사내지 그 파벌일수도 있다고 7일 홍콩의 明報가 추측했다.

毛遠新은 毛澤東의 조카로 지난76년10월 쿠데타(10월정변) 까지만해도 4인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심양군구 정치위원의자리를 차지하여 요령성뿐만아니라 길림성과 흑룡강성등 소위 동북3성의 사실상 지도자로 자처하다가 4인방의 몰락과함께 숙청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明報는 이날 공중납치에 관한 논평칼럼에서 어디까지나 어림짐작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추측하고 특히 요령성및 심양은 毛遠新의 대본영으로 모원신은 당시 사주 체육학원을 방문하여 배드민턴을 쳤으며 이대학의 보안책임자중에는 모원신의 부하가 있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신문은 또 납치범중에는 물자공급처의 간부도있어 납치동기에서「경제범죄」의 요소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라오印度外相을 접견하고 있다. 【崔東完기자찍음】

"兩國기업인 긴밀協力을"

全대통령, 印度라오外相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9일하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印度의 나라심하·라오外相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韓·印度양국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해 나갈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 열의를갖고 상호보완해 나갈때 좋은성과를 거둘수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고『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정부간보다도 양국의 기업인끼리 직접 상호협력관계를 더욱긴밀히 해나간다면 효율적인 협력이 이뤄질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라오外相은 이에대해『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이자리에서 지난3월의 非同盟頂上회담때 인도가 우리의입장을 적극지지해준것과 뉴델리 아시안게임때 인도측이 우리선수들을 환대해준데 謝意를 표명했다.

韓·印度 外相회담

李範錫외무 장관은 9일 訪韓중인 라오印度外相을 맞아 1시간동안 韓·印外相회담을갖고 양국이 南南協力의 모델이될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했다.

회담이 끝난뒤 외무부의 鄭基鉦대변인은 이같이 밝히고『양국의 외무장관은 南北韓交叉승인의 시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자리에서 李장관은 우리나라의 韓半島 평화통일 정책과 아울러 최근 자신의 訪美결과에 대해 설명했으며 라오外相은 양국간의 무역逆調是正과 아울러 문화교류의 확대및 중앙은행의한국지점설치등을제의했다고鄭대변인이전했다.

孝子·孝婦 포상자 2백4명招致 오찬

全斗煥대통령은 9일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姜貞善씨(女·45·濟州道濟州市二徒1洞) 등 어버이날을맞아 포상을받은 전국 孝子·孝婦포상자 2백4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함께한뒤 文鎭1개씩을 선물로 주었다.

社會漫評

돌다리…

地平線

우리의 기나긴 역사에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된 것은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기간의 일이다. 청동기시대의 유물을 분석한결과 중국의 청동기와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중국문명의 출발점인 殷은 우리와 같은 소위「東夷」族이남긴 문화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殷이망하자 周를섬기기를 거부하고 朝鮮땅으로왔다는 箕子도 東夷族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千寬宇씨). 중국의 傅斯年도「夷夏東西說」을 주장해서 殷이 東夷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있다. 殷墟에서 나오는 청동거울이나 점을 친 짐승뼈인「甲骨」은 한반도에서 나오는 것과 맥이 같은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된것은 3국시대이후다. ▼특히 이땅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세계帝國 唐의압도적인 군사력앞에 무너지면서 두나라의 관계는 더욱 커갔다. 하지만 천하제국 唐도 결국 이땅에서 쫓겨난뒤, 중국대륙의 지배자들은 늘 이땅을 경계하고 엿봤다. 蒙古를 물리치고 明을 세운 朱元璋은 고려에 보낸 國書에서 고구려에 도전했다가 고초를 겪은 隋煬帝와 唐太宗의 예를 들어「화평」을 제의했었다. ▼「우리는 같은 동양인이니 동양철학과 예법에 따라 서로 협조하자」고 중공의 沈圖국장은 말했다 한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문화권이라 漢字도 같고, 그림도 비슷하다』고 골동품 병풍을 보고 말했다 한다. 그가 데리고 온 스튜어디스 출중한아가씨가 한국출신 교포라는 사실도 우연은 아닌것 같다. 『베풀 張, 길 永, 빛날 煥』이라고 이름을 대는 45세의 승객도 후 우리 교포가 아닐까? ▼천수백년 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두 나라는 지금 세가닥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현대공학의 기적은 지리적 조건도 뛰어 넘는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공여객기의 불시착은 두나라사이의 역사적 기억과 현실을 한꺼번에 되씹게하는 큰 사건이 됐다.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면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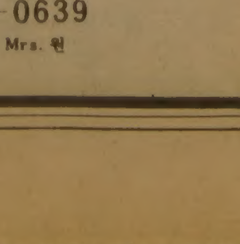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모든 敎育活動의 出發은 女性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 가장 效果的인 廣告媒体
주간女性
(416) 533-2361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 시
(토) 아침10시~저녁 7 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 Mrs. 원

서울·北京에 새로운 架橋

「不時着협상」으로본 앞으로의 韓·中共관계는…

처음부터 國號사용 사실상「相互인정」

樂觀은 금물… 먼장래 디딤돌 놓은격

우발적인 사고로 날아든 中共여객기는 그동안 韓·中共양국을 가로막았던 두꺼운 벽을 헐어내렸다.

먼 훗날에나 있을것같이 멀게만보이던 양국간의 직접對話는 대화자체가 서로가 상대방을 사실상 인정하는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대화에만 그치지않고 협상초부터 양국의 정식國號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졌다.

공식비공식회담에서나타난 양국간의 직접 접촉은 그동안 敵對관계에있던 양국을 사실상 인정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예기치않은 외교적 성과를 거둔셈이다.

물론 법적 외교적승인으로까지 가는것은 국제사회의 力學관계에도 달린 문제이지만 먼길로가는 旅路에 하나의 里程標는 마련한 셈이라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對中共과의 접촉내지 관계개선을 희망해왔지만 中共은 北韓을 의식, 이를 外面해왔던 현실로 비추어 볼때 中共人들의 예기치않은 한국방문은 그들의 對韓인식을 새로이 하고 관계개선을 돕는 분위기조성에 一役을 한것만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이다.

中共여객기 피납사건을 해결키위한 韓·中共간의 교섭은 실질적인문제는 손쉽게 타결됐으나 이를 文書化하는 작업이 의외로진통을 겪었다.

이것은 이번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고 이런類型의 사건을 처리하는 국제협약과 수많은 관례가 있기 때문에 해결방법이복잡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대표단이참석한 공식회의석상에선▲승무원과승객및 피납여객기는 中共측에서 인수한다. ▲납치범들은 한국의 국내법으로 처벌한다는 미리예상된 결론에 그대로합의했다.

그런데도 이러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은 본회담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難航을 거듭했다. 그러나 양측합의文書의 표현이야말로 文書양식의 비중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한국측은 합의문서에「中華人民共和國을대표한沈圖中國民航총국장과 대한민국을 대표한 孔魯明외무부차관보…」라고 표현하여 정부차원의 외교 公文書성격을 요구한반면 中共측은「中國民航을 대표한…」이라고 정부가아닌 민간수준의 私文書형식을 택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국국호의 호칭문제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외교관계가 수립되지않은 상태이기때문에 앞으로 양국관계의 진전에따라 상대방의 國號를칭하는 先例로 남기때문이다. 우리로선이번기회에 中共으로부터 호칭에대한 저당을 잡아두겠다는 생각이며 中共측은이번사건으로 인해 북한으로부터 불만을 사지않겠다는 속셈이다.

결국 합의문서가 우리측 주장대로「大韓民國」과「中華人民共和國」이란 국호가 그대로 반영된것은 우리에게는 실로 소중한 외교적 소득이다.

그것은 韓·中共간의 雙務的인 문제뿐만 아니라 中共의 영향권하에 있는 제3세계그룹에 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中共측에 호의를 갖고 임했다고 할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국제법과국제관례에따라 범인들을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未修交 상대인 中共의 대표단을 맞아들이는 등 의연하게 대처한 것은 한국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된것이다.

또 이번 양국간의 직접교섭과정에서 양국간의 연락수단으로 국제전신을 이용하는 새로운선례를 남긴것도 양측이 앞으로도 접촉창구로 이용할수있는 가능성을 남긴것이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앞으로의 韓·中共관계가 당장 원만하게 풀려나갈것이란 樂觀은 禁物이다. 국가관계란 돌발적인 사건하나로 급속히 악화될수는 있을지언정 갑자기 친밀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韓·中共관계는 이번 여객기피납사건의 처리문제로 白紙공간에 하나의 점을 찍은것에 불과하다. 이 점 하나가 서서히 확대되느냐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취를 잃어 가느냐는 양측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우연이든 고의이든 일단 직접대화의문이열렸다는 점에서 출발은 시작된것이며 앞으로 양국이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互惠主義에 의한 꾸준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를경우 길은 그렇게 먼것만도 아닐것이다.

【李在武기자】

◇韓·中共대표의 3日째 對坐 中共여객기被拉사건처리를 위해 韓國대표단(오른쪽)과 中共대표단이 3日째 對坐를 하고있다.

韓·中共협상 마라톤 會議

마지막「1%」서 고삐

○…會議는 춤추는듯 했지만 비틀거리지 않았다. 교섭은 99里까지 잘달렸지만 마지막1里에서 멈칫하면서 달려온길을 되돌아보는 冷靜을 찾았다. 體面이란 國益을 멀리서온 손님들이 들고나선것이다.

이 회담이 이뤄진것은여지껏 中共이 한국을「南朝鮮」이란 호칭에서「大韓民國」이라 부른데서 출발한 것은 사실. 이 사실이 8일 저녁12시까지 무리없이진행되다가 金炳連亞洲局長, 盧瑞令中共 民航總國際司 副局長등 합의문서 작성팀이 문서를 꾸미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측 수석인 孔魯明외무부차관보가 8일 하오5시30분께 3차회의를 성공리에 마치고 말한『회의는 99%가끝났지만 매사가 그렇듯이 나머지1%가 고비다』가 적중된 것이다.

中共측은 文書의 핵심인 서명자의 지위에 대해『알다시피 세루국장이 온것은 中國民航局의 대표로 온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中國民航만을 대표한다. 세루선생은 처음부터 中華人民共和國代表로 온것이 아님을 강조한바 있다』라고 발언한데서 비롯됐다.

이에대해 우리측은『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는데 귀측 대표가 동의했다. 文書남기는데 이의를 제기하는것은 유감이다. 당초의 협상정신에따라 우리가 내놓은안에대해 귀측의 의견을 말해달라』

中共측은『대표에게 이를물어 해결하겠다』고 말한후 회의는「1%의고비」에 고삐가 잡힌 꼴이됐다.

고비는 呼稱문제만이아니었다. 납치범의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납치범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에서 처리키로했다」는 우리측문안에 대해 中共측은『인질범을 돌려주지않아 유감이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中共측이 계속교섭권을 유보하겠다』고 文案에 삽입을 주장, 어려움을 더해줬다.

◇8일하오 제3차회담을 마친후 한국측 孔魯明, 中共측 沈圖 두수석대표가 기자들앞에서「滿足」의 포즈를 취하고있다.

○…9일상오10시부터열기로했던 제4차회의는 상오9시25분부터 20층 29호실인로얄수트에서양측수석대표를 뺀 雙方6명씩 최종날인작성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열었는데 12시11분쯤 趙重勳KAL사장이 주최한 오찬을 들고 하오2시15분부터 再開.

5분뒤인 2시20분엔 雙方의 孔·沈 두수석이 합석함으로써 전체회의 형식으로 格上했으며『뭔가 타결이 될것같다』는 기대를자아냈으나 한시간만인 하오3시25분께「잠시쉬고 다시 계속하자」는 우리측제의로 회의를 중단.

회의가 중단된후 孔수석대표는 회의장을 나와 21층에 마련된 외무부상황실로 직행,문을 걸어 잠근채 盧載源 외무차관보등과 구수회의를 가졌는데 이때 孔수석은『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에『진행중』이라고 간단히 답했고 中共대표5명도 굳은 표정으로 세루수석대표와 함께 대책협의를 위해 회의장을 나와 12층 숙소로 내려갔다.

밤새워 號稱 문제로 協商

停會수차…「資格」놓고 難航

○…회의가 속개된것은 하오 4시50분. 韓國측孔수석대표는『中共측으로부터 회의를 속개하자』고요청을 받았다』『아마 그들이 本國으로부터 무슨회답을 받은 모양』이라며 金亞洲국장과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이어 5분후에 中共측도 세루수석대표를 선두로 입장.

中共측은 停會중 北京당국과 전화와 텔렉스로 접촉, 새로운 지시를 받은것으로 보인다는게 관측통의 분석.

○…40분만인 하오5시30분에 세루수석등 中共측대표일행이 회의장을 나왔는데 기자들이『또 停會냐』고 묻자 옆에서 있던 蔣正才통역관을 통해『일하지요』라고 웃으면서 대답하고 12층숙소로내려가다시 鳩首회담에 들어갔다.

한편 한국측 孔수석대표도 회의장을나와 盧載源외무차관과 잠시동안 귀엣말을 나눈후『저사람들이 오늘 저녁 떠날것 같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오늘저녁은 어려울것같다』고 약간 침울한 표정을 지은후『저쪽으로부터 무엇을 받은게 있느냐』고 묻자『협상과정을 일일이 말할수도 없고…』라며 21층 상황실로 들어가 휴식.

○…첫회담은 7일 하오2시30분 예비회담을 겸한 오찬을 들면서 20여년만의 만남을 축하하는듯 한국산 포도주「마주앙」을 토스(乾盃)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시작됐다.

약1시간20분동안 진행된 이날 예비접촉에서 양측은 승객및 승무원과 기체양도문제, 6명의 납치범인도문제를 포함해 양측이 기본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번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構圖를 짰다.

○…7일 하오4시부터 양국은 대표9명씩 통역1명을 동반, 신라호텔의 영빈관에 있는 루비룸으로옮겨 약15분간에 걸쳐 대표단의 소개등과 함께『이유야 어떻든 우리땅을 밟은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단』는 孔수석대표의 환영인사에 이어 中共측 세루대표가『지금까지 승객과 승무원을 잘 보호해 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貴國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생각한다』는 인사로 시작됐다.

○…일요일인 8일상오10시에 속개된 제2차회담에서는 양측이 각기 송환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제시, 구체적인 협상을 벌였으나 1시간19분만인 11시19분에 끝났다.

이날 中共측은 여객기가 비상착륙한 춘천○○기지에 자기측 기술진을 보내 기체의 점검을 서두르는등 송환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서둘러 회담이 곧 타결될듯한 인상을 주었다.

회담이 끝난후 中共대표단은『일이 잘돼가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귀측에 물어보라』고 고개를흔들며 무거운 표정을 지어 협상이 난항임을 시사.

그러나 이미 쌍방간에는 서로가 양보할수있는 마지노선을 밟고있는듯 했으며 전날 孔수석과 세루수석대표가 통합병원과 워커힐을 방문하는 몇시간동안 차속에서 이미 양측의 보따리를 풀었다는소문이 나돌기도했다.

○…8일 하오4시부터 시작된 제3차회담은 당초 시간이 좀 걸리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1시간7분만인 하오 5시8분에 끝났다.

이자리에서 양측은 서로의 기본입장과 양보선을 의식한 탓인지 주로 환담만 나눌정도로 여유있는 분위기였고 특히 中共측은 납치범인도에 관한 종전의 강경했던 송환주장에서 일보후퇴, 승객의 인적사항등을 기재한 명단을 제시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송환원칙에 대한 일괄타결이 이루어졌다는게 참석자의 傳言.

【盧裕煥기자】

메아리

하늘

金聖佑 【編輯委員】

中共의 여객기가 하늘을 날다 느닷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이때문에 中共대표단이 자기네 비행기로 하늘을 날아와서 우리나라 대표들과 마주앉았다. 中共대표단은 北京에서 서울로 바로 오지 못하고 비행정보구역의 항로를 따라 먼길로 둘러왔다.

땅에 없는 길이 하늘에 있다.

인간에게 하늘이 길이 된것은 물론 비행기가 등장하고 부터다. 그전까지는 바람의 길이었고 구름의 길이었고 새의 길이었다.

원시시대의 하늘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저 아래서 쳐다만 보는것, 신비로운 것, 神이 사는 곳이었다. 인간의 역사는 하늘에 대한 도전의 역사라고도 할수 있다. 새가 하늘을 나는것을 본후 사람도 날개를 달고싶어졌고 땅에 매인 사슬을 끊고 싶어졌다. 레오나르도·다·빈치는 새의 운동을 세심히 관찰하여 공기의 흐름과 저항을 연구한끝에 새날개와 비슷한 것을 몸에 달고 山腹에서 뛰어내렸다. 피테같은 大詩人은「저 무한한 하늘을 날아 바다를 알수없는 深淵을 헤매보고싶다」고 말했다. 이 천재들의 希願은 모두가 하늘의 길에 대한 동경이었다.

인간은 마침내 비행기를 발명하여 하늘로 올라갔다. 인간이 1783년에 처음 氣球를 탔을때만해도 하늘의 구조를 잘 몰랐다. 상공에 오르면 지상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상황을 만난다.

요즘의 민간여객기들은 1만2천m이상의 高空을 날지 않는다. 제트엔진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外氣의 산소를 마셔서 인간이 잠시동안이나마 견딜수 있는 高度의 한계가 1만2천m이기때문이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승객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면 급강하하여 3천m이하의 하늘로 내려와 바깥공기를 마시면 된다.

지상에서 1만5천m 상공은 아노키시아 상태의 高度라고 부른다. 肺속의 飽和水蒸氣壓이 낮아져 산소를 받아들일수가 없다. 이 상태에서는 몸안에서 산소가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몸안으로 빨아들여지지 않는다.

더 높이 올라가 1만9천m가 되면 體液沸騰의 현상이 일어난다. 37도의 체온을 가진 인체내의 액체가 물이 끓는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가스가 생기면서 數秒도 견디지 못한다.

하늘이 높고넓다고해서 어디나가 다 비행기의 길이 되는것은 아니다.

하늘은 흔히 그속에 아무것도 없는 빈것이라는 생각에서 虛空이라 부른다. 虛空은 梵語의 아카샤란말의 譯語로, 아카샤는 모든것을 성립시키는 공간이라는 뜻을 가졌다.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한哲人은「실로 一切萬物은 虛空에서만생긴다」라고 말한다. 佛教에서 하늘은 모든것을 성립시키는 원리요 모든 倫理的價値를 이루는 基底다.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모든것이 그속에서 나타난다. 거울과 같다. 거울속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것을 비출수 있다. 하늘은 모든것을 包容한다.

中國에서도 하늘은 道德思想의 중요개념이 되어왔다. 王은 天子였다. 周王朝가 商王朝를 정복했을때 天命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정복을 정당화했다. 하늘은 人間道德性의 근원으로 생각되어졌다. 하늘은 전인류의 倫理활동을 뒷받치는 源泉이다.

낮이면 해가뜨고 밤이면 별이 총총히 반짝이는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일은 곧 하늘의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大空에는 비행기가 나는 길뿐 아니라 나라끼리의 길도 있다. 呼吸이 통하지않는 體液沸騰현상이나 아노키시아 상태의 高空은 하늘의길이 아니다. 하늘을 다니는것이 처음에는 한낱 公空이었지만 지금은 中共여객기와 中共대표단의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오게끔까지 되었다. 서울—北京간을 빙 돌려오지 않고 최단거리로 날수있는 길도 모든것을 成立시키는곳인 하늘이 열어줄는지 모른다.

記者의 눈

北京發 외신

중공여객기사건을 전한 첫北京발 외신은「中國民用航空總局(CAAC)」대변인의 발표였다. CAAC에 의하면 여객기의 瀋陽출발시간은 5일상오9시45분께. 비행기가 大連상공에서 범인들에 의해 납치된것은 이보다 한시간쯤 뒤인 11시. 우리와 1시간의 時差가 있으므로 우리시간으로는 이날 정오였다. CAAC는『기장으로부터「비행기가 납치됐다」는 보고가 있은후 교신이 끊어졌다』고 밝혔다. 春川에 불시착한 것이 이로부터 불과 2시간뒤인 하오2시께. 새삼 중공대륙과 우리와의 거리가 지척임을 실감케했다.

이후 중공당국은 외신과의 회견과 교섭창구를 철저히 CAAC로 일관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사건의 성격과 南北韓의 외교적 위치를 계산한 면밀함을 보여준다.

긴박한 상황속에서 전개되는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것이 CAAC였다. 그것이 중공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얼마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것등.

그얼굴이 7일낮 金浦공항 귀빈실에 나타났다. 정확히 사건발생 48시간만이었다. 32명의대표단을이끌고 來韓한 CAAC局長 沈圖의 몸짓과 표정에는 과연 4만여 직원을 거느리는 관록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10억을 넘어선 인구, 9백88만㎢(남한의 약1백배)의 巨軀와 바로 살에 닿는 거리가 필터없이 實物로 直視되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地政學的 위치가 중국대륙의 영향을벗어 날수 없으며, 우리는 또 옛날처럼 중공이라는 거대한 實體와 힘겨운씨름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현실인식은 기자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었을 것이다.

CAAC발표를 그대로 전하는 新華社통신과는 달리, 홍콩의 親중공계 신문들의 보도는 헤이그협정에 따르기로한 우리정부의 태도표명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는등 신축성을 보이고있다. 이를 보도함으로써 사건해결의 원칙을 못박아두자는 의도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또 일본보도기관들이 피납여객기에 일본인이 타고있음을 중공측에서「즉각」알려왔다는 외무성발표를 앞세운것이나,미국방송·신문들이「미군과 한국군의 경비아래」납치범들의 무장이 해제됐다는식으로「미군」을 앞세운것들은 모두脈絡을 같이한다.

이런 보도의 흐름에서 우리는 국제적 대형사건이 발생했을때 관련국가의 언론들이 어떤자세를 갖게 되는지를 본다. 동시에 이「國益」의 여론통일이 언론의 자주적인 판단과 良識에의해 보다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있다. 그것은 또 사건의 규모가 클수록, 전개가 급박할수록, 미리 정한 방침에 따라 여론을 통일한다는것이 國益에 최선일수만은 없음을 깨닫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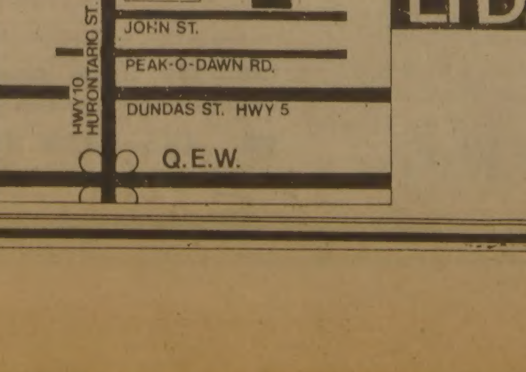
【朴賛式외신부차장대우】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 창 헌

아까시아 식당

AKASIA HOUSE (구·KY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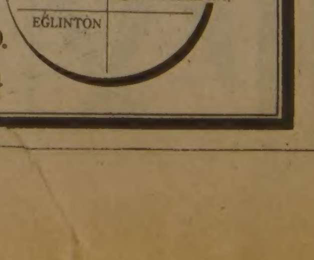
금번 15년의 경력을 가진 일류요리사 김정수씨가 저희식당에서 교민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읍니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가족들, 벗들과 함께 즐기시고 장안의
최고의 맛을 음미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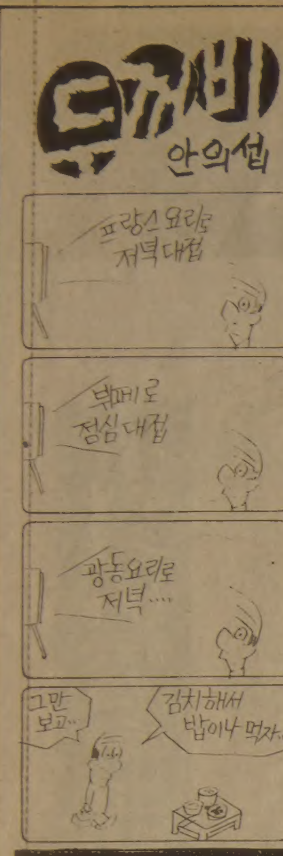
◆일식전문
□각종 덮밥
□각종 초밥
□우 동
◆한식
○비빔밥 ○불고기 ○갈비
○된장찌게 ○민어찌게

TAKE OUT SERVICE 간단한 모임 예약환영

□영업시간 화~금(낮12시~3시까지·오후5시~12시까지)
토 낮 5시~밤12시까지
일 낮 5시~밤12시까지



주소 : 1067 MIDLAND AVE. SCARBORO.
전화 : 755—3010
곽(이)수자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발사된 총탄은 8發

被拉機현장검증

離陸준비도 모두마쳐

【春川=姜秉泰기자】중부전선○○기지에 불시착한 중공여객기는 8일과 9일 이틀동안 기체점검및 정비작업을 모두끝내 이륙준비를 마쳤다.

중국민항총국 劉원범기술부국장등 10명의 중공기술진은 8일하오 KAL견인차를 이용, 기체를 불시착지점인 잔디밭에서 70여m떨어진 활주로위로 끌어올린데이어 9일 오른쪽엔진코일과 랜딩기어, 휠브레이크등 손상된 부분의 정비를 모두 끝냈으며 타이어10개를 모두 새것으로 바꿨다.

기술진은 또 기체의무게를 줄이기위해 객석의자 1백10개를 떼내고 승객들의 짐도 모두내렸는데 기체안팎의 상태는 이륙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중공기술진은 엔진의 시험가동에 필요한 급유를 요청, 이날 상오 한국공항공역의 유조차가 2천갤런의 항공유를 싣고왔으나 피납기의 귀환방법이 결정되지않아 급유는 보류하고있다.

현재 피납기에는 중공까지 최단거리로 비행할수있는 연료가 남아있는데 피납기가 중공까지 직항할로로 비행할수없어 일단金浦공항까지 갔다가 재급유를 받고 다시 이륙하는방법이 검토됐으나 ○○기지에서 가까운 다른비행장을 경유할 가능성도 있는것으로알려졌다.

한편 납치범들에대한 재판권행사에 대비한 검찰의 현장검증이 9일상오 春川지검 梁銈局 부장검사 지휘로 실시됐다.

이날 현장검증에서 검찰은 조종실로통하는 출입문의도어·로크부분에서 4발, 조종실바닥에서 2발등 6발의 총탄관통흔적을 확인했으나 탄피와 기체에박혔던 탄환은 회수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앞서기체점검을했던 중공기술진이 모두 회수해간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범인들이 발사한 총탄은 합법사등 승무원2명에게쏜 2발을포함 모두 8발인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중 1발은 조종실바닥을 뚫고들어가 조종실아래 배터리에 박혔던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에 의하면 조종실 바닥에는 군데군데핏자국이 있고 총탄구멍이나있어 피납당시의 긴박한상황을 엿볼수 있었다는것.

객실중간의 의자팔부분에도 하얀시트에 핏자국이 나있었는데 총격으로 인한 부상자를 옮겼던 흔적으로 보였다.

객실에서 조종실로 통하는 출입문은 함판으로 만들어진것으로 이문에 붙은 놋쇠로만든 도어·로크도 총격으로 부서져 있었다.

귀항航路 마찬가지

中共협상대표단과 피납기승객들을 태우고떠날 中共특별기는 지난7일 우리나라에올때 밟았던 항로를 따라 돌아가게된다.

이같은 비행코스는 출발전에 金浦관제소에 제출하는 비행계획서에서 확정되지만 관계자들은 우리측에서 서울-北京, 또는 서울-上海간 직선항로를 허용해준다해도 中共측은 들어온항로를따라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獨裁체제에 염증느껴 歸順"

北傀軍 신종철大尉

지난7일 동부전선으로 귀순해온 북괴군13사단소속 신종철대위(36·사진)는「11년간의 민경대(수색대)생활에대한 불만과 金日成독재체제에 염증을 느껴 귀순한것」이라고 9일 국방부가 밝혔다.

본적이 咸北羅津市동명동인 신대위는 귀순당시까지 강원도창도군백현리3반 군관사택에 살아왔으며 군에서 6년동안 권투선수로 활약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위는 귀순당시 권총1정과 실탄16발, 5원짜리 북한지폐, 담배2갑, 손거울1개, 책1권(십대강령)등을 휴대했었다.

풍선터져 女高生등74명火傷

슈퍼蹴球개막식서 담뱃불에

8일 하오 2시30분께서울운동장 축구장에서 한국축구슈퍼리그 개막식 행사에 사용된 고무풍선 1백여개가 연쇄적으로 폭발, 풍선을 들고있던 東豆川여상3년 崔榮禮양(17)등 여고생 70명과 인솔교사 3명, 경찰관 1명등 모두74명이 얼굴과 손등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하오3시 시구와 함께 풍선을 날리기 위해 학생1인당 10~15개의 풍선을 들고 스탠드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여고생들 쪽으로 관중석에서 담뱃불이 날아들어 풍선이 연쇄적으로폭발한것이다.

또 폭발한 풍선의불꽃이 스탠드현수막에 옮겨붙어 관중들과 학생들이 대피하면서 큰소동을빚기도했다.

부상학생들은 서울대병원등 6개병원에 옮겨져응급가료중이다.

「出發임박」속에 또 하루

被拉승객들 광장市場·새마을연수원 訪問

◇환한 웃음속 乾杯 건배하는 피납기 승무원들。롯데호텔 38층 메트로폴리탄룸에서 趙重勳KAL사장이베푼 오찬에나온 이들은 본국송환결정소식때문인지 오랜만에 활짝웃었다。

「뜻하지 않았던 旅行」마무리

「출발시간 임박설」속에서 가까우나 정말 먼나라 사람들인 中山服의 중공인들은 떠날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9일 교섭대표단은 협상결과와 출국예정을 본국에 보고하느라 전문왕래가 부산했으며 부상자 1명을 제외한 승객들은숙소인 쉐라톤·워커힐에서 짐을 꾸리는등「뜻하지 않은 여행」의 마무리에 바빴다.

그러나 교섭대표단은 이날하오 막바지협상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했고 승객들은「출발통고」를 기다리는 사이 서울의 광장시장을 둘러보고 새마을연수원도 찾아보았다.

한편 金浦공항은 특별기이륙에 따른 준비를 완료했으며 피납여객기도 정비를 끝냈다.

金浦空港 계속대기

中共피납여객기승객들의 출국을앞둔 9일 金浦공항은 출국준비업무로 바빴다.

지난5일 불시착이후 비상근무를해온 교통부 서울지방항공국과 법무부 세관 국제공항관리공단 대한항공등의 관계자들은 피납여객기의 출국상황실을마련, 이날상오 7시부터 출국수속 특별기정비및급유 기내식준비등 태세를 갖췄다.

그러나 이날 하오6시현재 공항에는 아무런통고가 없어 관계자들은 계속 대기상태이다.

電文25차례오고가

중공여객기가 한국에 비상착륙한이후 교통부와중공민항총국사이를 오간전문은 9일하오현재까지 모두 25차례나 됐던것으로 밝혀졌다.

교통부에의하면 중공민항총국은 8일하오11시25번째 전문을통해『회담결과를 알고싶다. 이사실을 우리 沈圖총국장에게 전해달라』는 내용의 전문을 접수했다.

한편 중공대표단은 9일상오 4시23분께 호텔新羅의 텔렉스를 이용, 주일中共대사관에 회담일정에대한 전문을 보냈다.

전문내용은『9일 상오 9~10시에출발할것을희망하고 있다. 협의는 계속중이다』고 보고했다. 이 전문은 8일밤11시 44분 중공민항국「린휀」씨로 부터 온 전문에 대한 답신으로 중공 본국 민항국은 이날밤의 전문에서『가능한한 빨리 출발시간과 항의 사항을 알려달라. 上海에서 영접준비를 하고 있다』고 돼 있었다.

또 대표단은 9일상오 9시께 같은 채널을 통해『5월9일상오10시 제4차회의가 열리며 양일회담합의내용에대한 각서교환과서명이 있을예정』이라고 본국정부에 보고했다.

上午에 완전妥結說

방한 사흘째를맞은 중공대표단은 9일 상오11시가 넘도록 점심식사를 주문하지않아 한때 협상이 완전타결돼 곧떠나는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상오10시 실무자회의가 열리다는 예고가나오고 30분쯤뒤에는 실무자회의가 당초예정인 영빈관에서 이호텔21층으로 옮겨져 협상이 타결을보지못했음을 시사해주었다.

이날상오에 열린 실무회의는 양측 실무자들이 참석했는데 정오로 예정된KAL 趙重勳사장주최 오찬약속까지 늦추며 회의를진행했다.

KAL협조 감사

趙重勳대한항공사장은 9일낮12시50분 롯데호텔 38층 메트로폴리탄 클럽에서 오찬을 베풀었다.

이날 오찬은 우리민항대표가 중공민항총국을초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공쪽에서는 沈圖총국장일행과 피납된 승무원등모두30명이, 우리측에서는孔魯明외무차관보등이 참석했다.

이날 趙사장은『이, 오찬이 동양평화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수있기를 바란다』며 건배를제의했고 沈圖국장은『그동안 대한항공측의 아낌없는 협조로 순조로운 해결을 보게되어 감사한다』고 답했다.

沈圖국장은 오찬도중 趙사장에게『중공에서 한국여객기가 같은사고를 당하게되면 여러분이 우리에게 해준것처럼 똑같이 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貨物 모두옮겨실어

피납여객기에 실렸던 중공승객들의 화물(1백60kg)이 8일밤 中部전선○○기지에서 金浦공항으로 옮겨져 특별기에 실렸다.

이들화물은 담배 인삼주 비누 휴지 옷가지 참기름 한약등 승객의화물과 우편낭등모두 19덩어리였다.

한편 대한항공측은 중공특별기가 이륙하기전 대표단10명분의 VIP 클라스기내식과 1백30명분의 단거리 1급기내식을 지원했다.

VIP 클라스기내식의 메뉴는 개비어(철갑상어알)로부터 꼬리곰탕, 시저스 샐러드, 안심스테이크, 송아지고기, 왕새우요리등으로 다양하며 후식으로는 치즈케이크, 초콜릿케이크및 각종과일과 꿀 수삼(水蔘)등이 제공됐다.

또 승객과 승무원들을위한 단거리 1급기내식은 바다가재 아스파라가스 샐러드 안심스테이크 왕새우요리등이며 후식은 오린지 딸기 사과등의과일이었다.

대한항공은 또 중공대표단을위해 탁상시계와 KAL마크가 새겨진 넥타이·스커프등을 넣은 VIP용 선물가방50여개를준비했으며 인삼주1병 솔 거북선등 담배 각 1보루 그밖에 10여개의 품목으로 세트를 이룬 일반용선물 1백여개를 준비, 특별기에 실었다.

中共機납치범 裁判權행사따라

서울地檢서 搜査착수

정부가 중공여객기납치범 6명에대해 재판권을행사하기로 결정함에따라 서울지검공안부는 9일 납치범에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납치범의 현재소재지가 서울형사지법 관내이므로 서울지검이 입건·기소할것을 전제로 수사에 착수한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공안부(李健介부장검사)는 지난 8일하오2시 피납기승무원들이 묵고있는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승무원들로부터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았다.

이날 李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안부검사 4명은 호텔 17층 다이어먼드룸에서 기장 王以軒씨(43) 부기장 和長林씨(33) 스튜어디스 程梅양(20) 姜民英양(20)李霞양(20)등 승무원 5명을 상대로 약 2시간동안 피납당시의 상황과 경위등을 진술 받았다.

이자리에는 중공측 송환교섭대표단 가운데 3명이 동석, 조사과정을 지켜봤다.

또 같은시간 李鍾旺검사는 부상으로 입원중인 항법사 王培富씨(25) 통신원 王永昌씨(22)등 2명으로부터 진술을 들었다.

검찰이 승무원들에 대해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은것은 앞으로 납치범 6명을 입건, 기소할 경우에대비, 승무원들이 출국하기 전에 재판에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현재 납치범에대한 수사를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할것인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있는데 불구속상태에서 주거지만을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납치범에 대해서는 항공기운항안전법및출입국관리법·항공법위반등이 적용될것으로 보인다.

◇離陸준비 완료 韓·中共합동점검반이 기체의 중량을 줄이기위해 기내좌석을 떼내고 고장을 수리, 이륙준비를 끝냈다。

「不時着」經費 2천8백만원

어제上午현재… 승객은 우리부담

지난7일 특별기로 입국한 中共교섭단과 승무원들의 체재비는 당연히 中共측의 부담이지만 피납여객기·승객·승무원의 체재비나 부상자 치료비등은 양측의 입장을 조정, 우리측이 부담하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의 각종 체재경비는 9일상오현재 2천8백만원. 이밖에 中共측이 부담할것으로 알려진 교체승무원들의 春川체재비와 교섭단의 호텔新羅경비 5백67만원을 합치면 불시착선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경비는 2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승객들의 경비부담문제는 8일의 3차회담에서 中共측이 먼저제의, 경비내역을 알려달라면서『본국에 돌아간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텔新羅의 경비는 9일아침 中共교섭단이 지금까지의 계산을 뽑아달라고 말했는데 출국시점 지불할것으로 보인다.

"혼하오"

워커힐호텔 韓鍾武부총지배인

생전 처음「外交」곰곰히 씹어봐…

피납 중공여객기의승객들이 머문 쉐라톤·워커힐호텔은 6·25때 전사한 미국의 워커장군을 추모하여 이름을 붙인호텔。이곳에 그사람들이 떼지어 와자고 갔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아닐수없다。쉐라톤·워커힐호텔 부총지배인 韓鍾武씨(43·사진)는 5일 밤 9시40분께 중공승객이 워커힐호텔로 온다고 통보받은 순간의 심정을 표현하는데 마땅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조금은 과장기있게 말한다.

지난63년 무역회사원에서 호텔맨으로 변신한지 20년동안 이디오피아의 셀라시황제, 존슨前미국대통령등 수많은 珍客을 접대하고, 각가지 진풍경을 접한「세계인」이었던 그로서도 이번엔 온몸을 타고 흐르는「묘한」감정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전종업원에게「중공비상」을걸고 우리의 진실된 면을 보여주자고 다짐했다. 우선 3층과 5층에 트윈객실 46개를 마련하는등 손님맞을 채비에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6일 하오2시20분 호텔에 들어선 중공인들은 珍客이라기 보다는「묘한 손님」이었다。무뚝뚝하고 표정이 없었다。긴장감만 감돌았다。맛있는 요리를 내놓아도 시큰둥했다.

그러나 중공대표단이 한국에온 7일하오부터는 그들의 태도가한결 부드러워졌다。엷은 미소가얼굴에 번지기 시작했다。특히 8일 아침의 양·중국식뷔페와 저녁에 金龍흘에서 한 식사는 음식을 즐기는 중국사람들의특유의 식도락의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돼지고기, 통닭, 새우, 쇠고기등보다 상어지느러미, 해삼탕, 죽순, 버섯요리등을 많이 들었고「헌하오」(很好·매우좋다)를 연발했다.

우리가 베푼 친절과 그들이 남긴「헌하오」와의 사이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서로의 마음을 여는 작은 움직임이 큰물결로 연결되는 열쇠는 될수없는 것일까.

그는 생전처음「외교」라는 말을 곰곰 씹어보았다고 했다.

【薛熙淸기자】

장학생선발공고

Scholarship for Korean Students

본재단은 제5차 장학생선발을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오니 많은 학생의 지원을 바랍니다.

●대 상 자 : 1983-84학년도 대학교, 전문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할 한국인학생.

●선발인원 : 5명 ●장학금액 : 1인당 $1,000 ●신청마감 : 1983년7월31일

●구비서류 : (1)지원서(본재단 소정양식) (4)한국인 1인 추천서
(2)최근 2년 성적증명서 (5)자기소개와 장래의 포부를 기초한 수필
(3)학교선생 2인추천서 (6)6개월안에 찍은 사진 1매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기재하고 (한국인추천서는 제외) 원본과 사본 각1매를 제출할것.

●지원서 요청·제출및 문의처 : 과거에 신청했던 학생도 재신청할 수 있읍니다.
Korean-Canadian Scholarship Foundation c/o Dr. Y. Lee
30 Humbertown Center Suite 9 Islington, Ont. M9A 3T7
☎233-9301(이영일) 533-7923(강공선)

카나다한인장학재단 Korean-Canadian Scholarship Foundation
이사장 강 공 선

장학생선발공고

지·덕·체를 겸비하려는 개인적인 수양의 길을 격려하고 사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위한 이같은 계속적인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하여 완인태권무도회는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1. 자 격 1)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좋은 학생. (평균B학점이상)
2)1년이상 태권도를 수련한 현역수련생으로 앞으로 적어도 1년이상 소속도장에서 수련을 계속할 학생.
2. 모 집 인 원 1)1~4학년생 한국인4명, 외국인3명.
2)5~8학년생 한국인2명, 외국인2명. 총인원11명
3. 장학금지급액 1)1~4학년생 개인당 $100
2)5~8학년생 개인당 $150 총지급액 $1,300
4. 제 출 서 류 1)원서 (본회에서 요구에 따라 우송할 수 있음)
2)현학년의 성적증명서
3)태권도 수련기록표 및 소속도장사범의 추천서
4)작문(1~2학년 150자, 3~4학년 300자, 5~8학년 500자)
5. 서류제출마감 1983년 6월10일까지 본회에 도착시킬것.
6. 발표 및 지급 수상자에게는 개별통지 및 신문지상에 발표하며 1983년 6월24일(토요일)에 지급함.
7. 서류제출처 및 연락처 1) 2281 Yonge St, Toronto M4P 2C8 Tel: 483-4003
2) 1865 Lawrence Ave, E, Scarborough M1R 2Y3 Tel: 759-2500

비영리사단법인 완인태권무도회

WALKIN COOLER, FREEZER, AIRCON, NEW & USED SALE

판매 수리 시설

GENERAL REFG. LTD. DEALER

PALMERS REFG. AIRCON CO.

750 OAKDALE RD. UNIT #10

Bus. 494-0512 Res. 493-9945 김봉균

"고마움 가슴에 새기고…"

어제도 한국의 風物·人情에 흠뻑 젖어

"돌아가 한국모습 그대로 전하겠다"

中共人5명이 말하는 이모저모

韓國女人 미인이다

▲張文宇(28·瀋陽市和原區南京街3號·의과대학원 졸업반)=비행기를 탄것은 석사학위 논문준비때문이었다. 아버지도 의사이며 나도 의사가 될 생각이다.

三星電子에서 하루 4천대의 TV를 생산한다는말을 듣고 놀랐고 또 대부분이 외국으로 수출된다는설명에 다시한번 놀랐다. 한국은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공업이 발달한 나라같다.

7일밤 워커힐호텔 디너쇼는 충격적이었다. 나는 아직 미혼인데 한국여인들은 매력적이고 미인도 많은것같다.

한국의 침술에 대해 들은적이 있다. 中共에는 양의학과 한방요법이 병행되고있다.

요즘은 전기침이 개발돼 널리 보급됐다. 타박상은 파스를 붙이는 대신 종지에 알콜을 부은다음 살짝 불을 붙여 치료한다.

中共도 결혼은自由

▲楊國君(27·遼寧省桓仁縣의약공사직원)=의약공사는 국영으로 나는 직책상 전국을 많이 다니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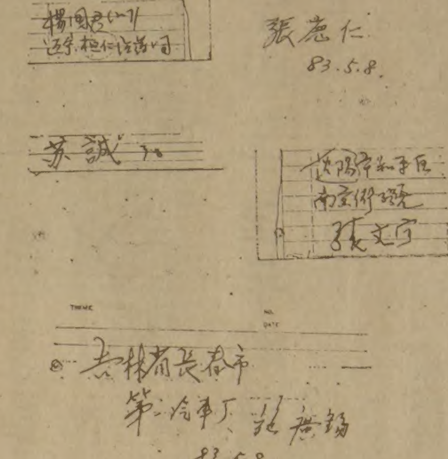
起亞産業에서 산업로보트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다. 작업환경이 매우 좋은것도 부러웠다. 무엇보다 거대한 공장이 국가소유가 아니라는점이 이상했다.

관광을 하는길에 유쾌하게 걷는 젊은이들을 보았다. 안내하는 아가씨들이 데이트에 관해 묻기도했는데 中共에서도 결혼은 자유롭다.

생필품도 마음대로 사고 몸이 아프면 의료비는 국가에서 보조해준다.

中共에서도 무술영화가 자주 상영되며 작년에는 「少林寺」가 인기였다.

우리도 개고기를 먹지만 中共에있는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무척 좋아하더라. 중국의 한국인들은 농업 공업 상업등 각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있다.



◇피납中共人 5명이 관광을 하고난뒤 소감을 말하면서 서명을 해주었다

편지로 계속만나자

▲施廣錫(46·吉林省長春市 제1汽車창근무)=자동차공장 직원인 나는 起亞산업을 돌아본것이 매우 이로왔다.

·서울은 지하철이 있고 워커힐 롯데호텔등 고층건물이 즐비하여 瀋陽보다 크고 발전된 도시라고 생각한다.

피납순간의 악몽보다 春川과 서울에서의 4박5일을 소중히 간직하고싶다. 한국의 신문도 몇부 기념으로 가져가고 싶다.

吉林省엔 한국인이 많고 이들은 중국인들과 아무차별없이 살고있으며 생활정도도 좋다.

한국과 서울에 대해 이번에 보고 느낀것을 중국의 한국인들과 동포들에게 그대로 전하겠다.

吉林省長春市汽車공장으로 편지를 해달라. 당신과 나의만남을 서신으로 계속할수있지 않겠는가…. 한국정부와 서울·春川시민들의 환대를 영원히 잊지않겠다. 세세.

"한국、工業이 매우 발달한 나라같다 / 中共의 韓國人 각분야서 크게활약 / 學生교제 허용、「손잡는 행위」 금지"

韓國신문 갖고싶다

▲蘇誠(38)=우리일행의 피납과 서울 체류에 관한 기사가 한국일보에 크게보도된것을 보았다. 돌아갈때 기념으로 갖고가고싶다.

나는 자동차공장에 자재를 공급하는 일을하고 있는데 起亞산업의 자동화된 공장설비를 보고 내가 근무하는 공장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했다.

월급이 60元인데 쌀·채소등 식료품과 웬만한 생활품은 넉넉히 살수있다.

그러나 中共에서 냉장고·TV등 가전제품보급은 일반화되어있지않다.

中共에서의 결혼은 보통 중매로 하지만 연애결혼도 가능하다. 결혼식은 예식장보다 가정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신혼여행지로는 杭州와 蘇州가 인기다.

정부에서 인구억제책으로 하나낳기운동을 펴고있으며 아들선호사상은 사라진지 오래다.

한국인의 친절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中共학생 禁酒·煙

▲張慶仁(45·遼寧省阜新市광업대학 전자기초교원부 교수)=내가 근무하는 대학은 5년제로 모든 재학생은 매달 21元50角의 장학금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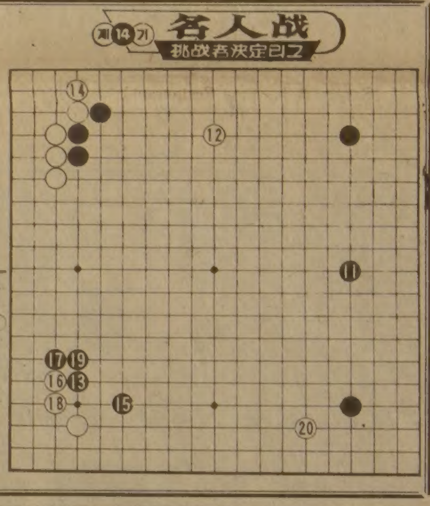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학제는 소학교3년 중학교3년 고교3년 대학4년으로 한국과같다.

성적이 우수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할수있다. 대학을포함 학생들은 남녀교제를 할수 있으나 서로 손을잡는 따위 행위는 금지되며 술담배도 허용되지않는다.

학생들은 사복을 입을수 없고 中式服을 입는다. 中式服은 집에서나 외출때나 입을수있는 한국의 캐주얼복장과 비슷하다고 볼수있다.

中式服은 중국의 상징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입으며 대학교수도 예외는 아니다.

瀋陽은 공업의 중심지로 제강업체가 많다.



第16局 第2譜 11~20 (각5시간·덤5집반)

白〈7段〉徐 奉 洙〈3勝1敗〉

黑〈4段〉李 相 澈〈1勝3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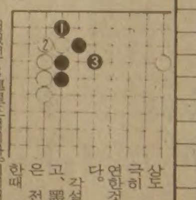
勢와 實의 대항

徐7단은 지금 國棋戰에서 曺薰鉉9단에 도전하고 있지만 이것역시 2국을 연패하여 막판에 몰려버렸다.

난공불락 曺帝國의 강함을 새삼 실감하게되거니와 그보다도徐7단은 과연 힘이 달린단말일까. 엄마전까지 「曺·徐」라면 곧 돌도없는 라이벌의 대명사처럼 여기고, 팬들은 스스로 열광의도가니에 빠져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옛날일로 되어버린 느낌이다.

올들어 도전대국에서 5연승을 한 曺9단의 저력은 그저 놀라울 따름. 앞으로 일인독주의 현상은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일반적 예상도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각설하고、黑11은 전날 한때 유행했던 3連星포석이다. 이에대해 白12로 먼저 14에놓어두면 黑이 12자리에 선착할까보아 변화를꾀했다.



이때 黑13 이수는 참고도와같이 黑1、3이면 간명한데 李4단은 굳이 좌하귀에 걸쳤다. 그러나 白14를 허락하고보니 12와더불어 두곳을 계속 당한꼴이어서 黑이 불만이다. 아마 黑15에 선착하여 白16이하 黑19의 정석이면 불만하다고 생각한 모양. 白20에 걸치자 실리와 세력의 대결이다. 【一凡】

張吉山 〈1736〉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96)

『한편 장길산의 일기병과 승병들은 철원에서 천마산 솔부리까지 나온다음에 해서 군사와 발을 맞추어 흥인문을지나 훈련원을 점령할 것이요. 양주방면을 떠난 검계원들은 혜화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성밖의 주요새는 남한산성과 강화 방면이나, 산성은 수직승군들이 일의진행을 보아 그대로 선주를 쳐서 점령할 것이고 강화는 우두령과 그 이하 송도쪽에서 감당을할 것입니다』

『한양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안돈이 서려면 시일이 걸릴텐데요』

오계손이 말하였고 황회가 설명하였다.

『우리는 넉넉잡고 열흘은 견딜 수 있읍니다. 벼슬아치의 혈족들이 모두 한양에 살고 있고, 궁인 왕족들은 모두 우리수중에 있을 것이니 삼남의 지방군과 북관의 군사들은 함부로 움직이지못합니다. 백성들사이에방방곡곡 연계가 짜여진것은 아니지만, 이미 세상이 바뀌고 양반들이 역성혁명군의 수중에 떨어졌다하면 토호나 지방세가들도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실상, 관서 관북 백성의 인심은 우리손에 들어온것이나 다름없읍니다』

오계손이 흡족한 얼굴이 되어 말하였다.

『우리는 칠월칠석에 큰 계획가 있으니 그 무렵이 좋겠읍니다』

여환과 황회도 잇달아 그안에 찬성하였다.

『천불산에서도 진년인 올여름을 지목했지요. 그리고 일이 어긋나면 올 시월초에, 그러고도 어그러지면 내후년인 경오년(庚午年)을 준비하기로 되었읍니다』

『어정 칠월이라하니 그때가 백성들로서 아직 일 없이 어중된 철이지요. 그 다음에는 역시 추수 끝내고 빈둥거리는 철인 시월 초가 제격입니다』

전성달이 말하였다.

『오박수의 제원들과 강원도와 장길산 일기병들의 합대는 용녀부인이 그 주축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거병하여 도성을 들이치는 것은 군호로 대우(大雨)라고 되어 있읍니다』

『예, 그것도 천불산에서 결정되었지요. 저희들 외에는 일반 향도들에게는 천변이 일어나 큰 폭우가 내린다고만할 작정입니다. 소승의 내자가 용녀부인이되어 그러한 천지조화를 일으킨다는 소문을 낼것입니다』

여환의 말에 오계손은 끄덕였다.

『신서보다는 그것이 훨씬 적합한 방법이지요. 우리 조카 만신이 군복을 입고 군병을 이끌면 더욱 신이하게 보일 것입니다』

『천도(天道)를 실행하려는 미륵의 군병이 백성을 위하여 일어섰다하면,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뒤로 빠지지않을 것이오』

여환은 말하고나서 합장을 하였다.

『나무 현거도솔 당래하생 당래교주 자씨미륵존불…』

그들도 따라서 합장하였다. 그들이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올라오니 계화와 원향이 등은 신행 떠날 채비를 마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원향은 그냥 무명 치마 저고리에 무구(巫具)를 싼 보퉁이를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다. 말립은 꾸린 세간을 멜빵 저서 등에 걸머졌다.

■강 사·고 석 희 목사
(뉴욕연합청년회 지도목사)

■ 때 : '83년 5월20일(금)~23일(일)

■장소 : PINE ORCH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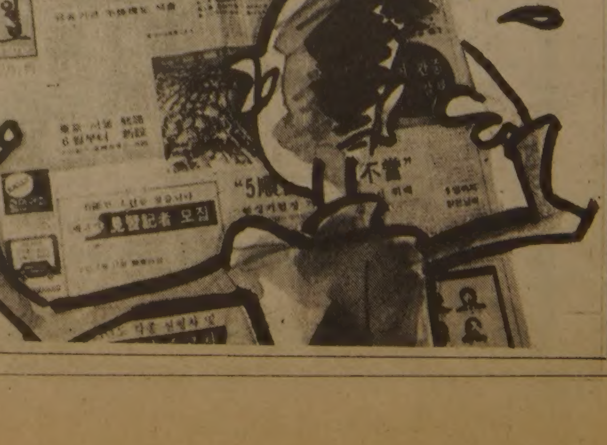
■연락처 : 송 병 현 ☎ 536-8018

주최 · 한인기독대학생회(K.I.V.C.F.)

후 원 · 교역자협회, 장로연합회, 교사연합회

카나다 · 미국 어디서든

한국일보는 교포 곁에 있읍니다.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533-2361~4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00AM~1: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울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537-0432

오!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 칼국수전문.
1112 Yonge St. 전화: 921-4468 박승홍

마쵸레스토링(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환영.
예약전화: 491-4058. 3030 DonMills Rd.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 $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226-1146 Mr. 정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533-2361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532-1054 오 석환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636-1430
주소: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방관광여행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라메관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291-8304(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431-2596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B)789-7351, 789-7352 대표: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251-9587 위정남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B) 881-5000 (R) 221-2979 김 병 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디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프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아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763-1155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B)593-5238, (R)759-4012. 최호권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하르빈한약상사
전 중국한의대교수, 전 중국의대졸업.
하르빈한의대졸업. 한의학과 침구연구 20년.
한약으로 암치료연구 20년. (중국어, 일어, 한국어 능통).
각종한약 중국에서 직수입 도산매전문. 20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약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저 하옵니다.
643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B)536-6854, (R)921-3382 서춘봉.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불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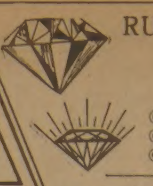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전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파트타임 직원급모 (1)Receptionist: 영어와 한국말로 전화를 받을수 있으며, 영문타자를 빨리 칠 수 있는 용모단정한 사람.
(2)식당종업원: 토요일저녁(6시-10시) 간이식당서 일할 분(연령불문)
◉문의나 신청은 West End YMCA(931 College St.)
Mr.Kim이나 Jackie. 536-1166

유경험자 가게헬퍼 구함.
전화 : 741-1465.

카페테리아에서 일할 훌타임, 혹은 파트타임 여학생 구함.
직접 내방요 (오후2시~5시사이)
96 Spadina Ave. (At Adelaide)

◆급구◆ 파트타임 가게헬퍼. 운전할 수 있고 West쪽에 살고있는 남자학생을 원함.
전화 : 622-8516.

입주, 또는 출퇴근하면서 아기보아 주실분 구함.
전화 : B)839-8438, R)282-6223.

주방헬퍼구함.
경험자우대. 몬트리얼지역.
"회의 집" 전화 : 1-(514)-861-6128.

Store Helper 구함.
경험있는 여자분에 한함. little bit of coffee work
Downtown지역. 전화: 368-8834 (오전11시이후)

도너츠숍에서 일하실 주말헬퍼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2-0634.

스토아 헬퍼 구함.
7일간 훌타임. 남자원함.
전화 : B)466-3995.

Full Time Helper 구함.
젊은 남자분.
전화 : 763-2980, 762-1572, R)769-9854.

경험있는 캐쉬어 여학생 구함.
파트타임(오후5시~10시), 단 토·일요일은 훌타임.
전화 : 621-4121 Mrs. 정. 서쪽 지역.

재봉사구함.
여자옷종류 재봉할 수 있는 분.
전화 : 366-3227.

파트타임 Store 헬퍼구함
전화 : 488-1634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 입니다. 광고국: 533-2361

매 매

버라이어티가게 개인사정상 급매.
살림집 포함된 전망 밝은 가게.
자세한 내용은 왕림하셔서 확인바람.
주매상 $3,000, 많은 권리금 기대치 않음.
230 Ontario St. St. Catharine, Ont.
전화 : 1-685-5863

---

1)야채및 파일가게
주매상 $6,000이상, 리스 5+5+5년.
계속 발전되고 있는 동네안의 깨끗한 Plaza내에 위치.
가정형편상 급매코저함. 유경험자나 대가족을 가지신 분은 꼭 한번 보십시요.
2)Fast Food
Bloor & Yonge의 바쁜 Shopping Center안에 있음.
주매상 $4,500, 리스 3+5년, 짧은 시간, 같은 주인이 7년간 운영. 본국으로 돌아감. 아스킹 $129,000
3)Fish & Chips-Bargain!!!
주5일(40시간) 영업, 일, 월휴업.
Rent $750/month ; 주매상 : $4,500이상(일요일도 영업시엔 $1,000이상 매상가능) 35석.
Fish & Chips 와 Coffee만 취급.
Take out 함. 월순수입 $8,000이상
가격 $139,000(All Cash Only)
현싯가보다 훨씬 싼 가격이니 이 좋은 기회를 먼저 잡으십시요.

SINCERE REALTY 채준성(David Chae : B)497-8900)

성업중인 마켓 건강상 팝니다.
토론토에서 Beach Area.
주매상 $7,000, 여름철엔 $13,000
2038 QUEEN ST. E.
전화 : 690-6572 (경마장 동쪽-I.G.A.옆)

Becker's 후렌차이스 Store 매매.
314 Painted Post Dr. Scarboro, Ont. 직접 내방 요망.

카사로마 미장원 매매
3개룸및 부엌 포함
전화 : 921-5947 Mr. Gus

---

1)새로 차린 자그마한 도낫 커피 아스크림숍
$1만9천 Rent 600
2)월세 $600 가게 800 SQFT. Queen Greenwood 이층 Apt.도 세놓음
3)Wellesley & Parliament dry cleaning Depot $24,000 연매상 $60,000 수선은 별도수입
4)Driving Restaurant 401, Missi Rd. 희랍인이 차린집 1년 56석 주류허가 14년리스 12만5천불
5)Driving Restaurant 401 Pickering 44석. 주류허가 통닭전문집 다른 업종변경도 가능함. $17만5천(외국인4년 경영하고 있음)
6)Scar Centenial Hospital 근처 3 Bed Town House 뒤가 남양바지에 그린벨트가 있음. 5만7천9백
7)West Hill Side Split 15만5천 주인이 은퇴함 8년이 됐고 다 꾸며진 지하실에 뒷뜰이 큼.
8)Bloor & Dovercourt 2층 벽돌 새로개조한집 12만7천불
9)하이웨이 No.7 우드바인 1에이커 땅에 벽돌집 꽃과 나무와 잔디. 주인 은퇴함. $8만 down
Royal Trust Co. 전화 : B)752-3111 R)298-0398 곽석용

Yonge & Eglinton 좋은 장소에 있는 레스토랑.
리스 길고. 76석. (L.L.B.O.)라이센스 있음.
전화 : 483-3831 Mr. Bill or 484-0921 Mr. Lee

좋은 위치에 계속 성업중인 중국식당 매매
Full License. 전화 : 654-6609
538 St.Clair Ave. W.

Town Houese 매매(좋은 가격) · 매매.
Jane & Sheppard지역
전화 : 743-3377 Mr. Eastman

가게 달린 주택 매매.
좋은 위치, 좋은 전망.
전화 : 653-1958 Mr. Viss 영어로 문의바람.

버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주매상 $7,500, 리스 5년반 + 5년옵션.
꼭 사실분만 문의바람. 전화 : 746-0272.

Dry Cleaners(Depot)매매.
주매상$850, Rent$350, Asking$23,000.
전화 : 531-5664.

그로써리 Store 매매. 주매상 $7,000($10,000 가능)
아스킹 : $98,000 리스: 10년 렌트 : $500
토론토 북쪽 전화 : 1-852-7907

피자식당(L.L.B.O)과 옆에 붙어있는 서브마린식당 매매 원함.
리스 8년+10년 옵션. 40석.
두 식당을 한꺼번에 사실분 연락요망.
직접 내방요망.
1166 Morningside Ave. (Sheppard지역)
Mrs. Kim 전화 : 281-8218

Private Sale. 버라이어디 가게
주매상 $8,500이상. Extra Income $2,500이상/M (Lotto+Game). Cash Deal.
16 Hansen Road North, Brampton.
(오전10시부터 12시 사이에만 문의요망)
전화 : 457-7071

FRUIT MARKET 급매.
연수입 $2만보장. (켄싱톤 MARKET & SPADINA)
Asking $4만. 전화:977-6347, 591-9378 Mr. Lai.

Show Case 4ft & 6ft(기타 여러종류)
Magazine Rack 급매.
전화 : 757-8323, 759-6445

도나스 숍 매매. 주 $5,500
Bathurst & 580 Queen St. W.
전화 : 368-2100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매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5,000.
렌트 : $700. 리스: 6년+10년 옵션
전화 : 1-388-4825(해밀톤)

이전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급매.
3 Bed Room. 콘도미니움 타운하우스.
전화 : 493-0615 Mrs. 안(6시반이후)

버라이어티 & 그로서리가게 급매
주6일 영업. 주매상 4천불. Lotterio+Video기계있음.
Asking 3만불+스탁. 714 Scarlett Rd.

Donut Shop 매매 Asking: $159,000
$80,000 down or $140,000 cash
전화 : 447-6129 call after 9pm ask for Nick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6,500 + 로타리오 머쉰있음.
전화 : 977-0578. Mr. William(K.SEE REALTY INC)

Variety Store 매매. Hamilton
주매상: $6,000 아스킹: $61000 리스: 5년($650)+5년($750)
현재 $580 (in Plaza) 1-528-3986 Mr. Lee

햄버거 레스트랑 매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MR. ANGELO

세탁소와 2개 아파트 딸린 건물 매매
전망 좋은 사업체
킹과 더프린 지역 전화 : 638-0781

오픈한지 5개월 된 도너츠숍 급매.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3-1733.

Dairy Case 싼값으로 매매
전화 : 487-9792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화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충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파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마끼지 않고 직접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피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헌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한칼라현상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5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제,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퀴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